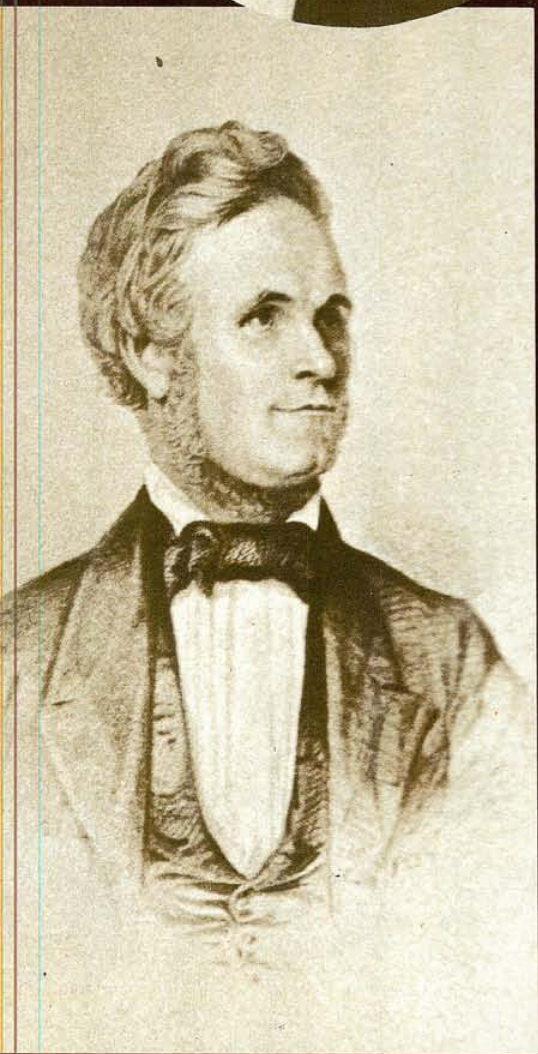




성도의 벗 7
1972





윌리엄 에이취 베넷 장로
(십이사도 보조)

●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며, 혼란이 겹치고 모순, 갈등, 투쟁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합니다. 마침내 인간은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은 전쟁터에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과 싸워나가면서 자유 의지를 행사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 속의 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악마의 힘과 정의의 힘은 모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며 이로서 도처에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일게 됩니다. 만일 정의의 힘이 승리를 한다면 지상에는 사랑과 조화와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악마의 힘이 지배를 한다면 전쟁이나 파멸로 이끄는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심의 갈등을 해소하고 내적인 평안과 외적인 화평을 모두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탐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좋은 해결책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파괴보다는 건설을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으려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표지설명 :

이 달의 표지 사진은 말일의 예언자 열분의 모습이다. 원판에서 오른편으로 왼쪽이 조셉 에프 스미스,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요셉 스미스, 조셉 필딩 스미스이고 중간이 조지 알버트 스미스, 로렌조 스노우, 아래쪽이 히버 제이 그랜트, 윌포드 우드럽, 존 테일러, 부리갑 영이다.

순서

영감의 메시지

- | | | |
|-------------|----|-------------------------|
| 해롤드 비이 리 | 1 |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
| 보이드 케이 팩커 | 10 | 여러분이 현재 있는 가정에서 부터 시작하라 |
| 벨 에스 스탠포드 | 16 | 가정의 밤 |
| 빅타 엘 부라운 | 19 | 옥에 갇혔을 때 악서 보았느니라 |
| 매리 조이스 캔스 | 21 | 엘로 리프의 선물 |
| 마벨 존스 개봇 | 24 | 엘마 |
| 매리 프랏트 패리쉬 | 26 | 두사람 |
| 마벨 존스 개봇 | 28 | 마카로니로 만든 목걸이 |
| 에이 데오도르 터틀 | 29 | 가장 중요한 일들 |
| | 32 | 주님의 예언자 |
| | 40 | 성도의 빛의 목적 |
| | 41 | 사랑하는 조안에게 |
| 버나드 피. 브룩뱅크 | 42 | 십계명 |
| 웬델 제이 애쉬튼 | 45 | 공원에서의 아침식사 |
| 박 재암 | 46 | 선교부장단 메시지 |

영감

제 8 권 제 7 호
1972년 7 월호

● 대관장단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이 리
엔 엘돈 태너

●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킴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윌버트 엘 스탠포드
매리온 지 롬니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이 부라운
하우워드 더블류 힌터
골든 비이 헝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팩커
앨빈 제이 애쉬튼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 1972년 7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84호

편집겸 발행인 : 엘 에드워드 부라운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1권 100원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송료포함)

1년보

여성 으로서의 본분을다함

해럴드 비이 리 부대관장

말틴 루터는 여성의 본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브가 아담에게 보내졌을 때 아담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그녀에게 가장 성스럽고 가장 영예로운 명칭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만물의 어머니란 뜻이었습니다. 그는 하와를 아내로 특징짓지 아니하고 다만 어머니 즉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의 어머니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성이란 이러한 영광과 고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았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여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일성도 여성의 참된 표준으로서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을 이해하여 생각하고, 믿고, 스스로 행동하는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숙하고 참된 여성이라면 여성을 단지 성의 상징으로만 취급하는 저속한 사진이나 영화를 보고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대부분이 캘리포

니아 주의 질 잭슨 밀러 여사가 쓴 정당한 여성의 권리라는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성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내이며, 여러분의 애인이며, 어머니이며, 딸이며, 누이며 또한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 자비로움, 이해, 안정, 아름다움,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 선전이나 영화나 텔레비나 라디오를 통하여 나의 내적인 자질을 무시하고 항상 나를 단순히 성의 상징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나를 경멸하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나의 위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즉 미와 영광과 자녀와 남편과 하나님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처사입니다.

“나는 나의 본 위치에 돌아가기 위해—내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성 여러분이여, 나는 여러분께서 그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압니다.”

나는 이러한 말이 오늘날 모든 참된 여성의 마음 속에 있는 호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나친 유행을 추구하는 것은 창조주의 거룩한 계획 위에 있는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노력에 호응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복장을 하거나 단정치 못한 복장을 한 여성은 자신의 자연미에 부족함을 느껴 이를 다른 복장으로 메꿈으로써 이성의 관심을 끌려 보자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성이라도 이성의 관심을 끌게 도와 주십니다. 남성의 복장을 차려 입는 여성이나 여성의 기질을 따르려는 남성들은 성적인 부조화의 물결 속에 빠지고 맙니다.

만일 여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체를 합당하게 지키고 보존해 간다면 그녀는 남편의 참된 사랑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고, 순결

1. 루터, 말틴(1483~1546) : 독일의 종교개혁가. 신교의 창시자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을 찬미하는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매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꼭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참된 여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 교회의 몇몇 훌륭한 지도자와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 중 한 형제님께서서는 최근에 어느 두 자매가 각각 다른 시간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어린 아이를 갖을 수 있게 특별한 축복을 부탁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형제는 그 자매가 신혼 시절에 아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갖지를 았았다가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들이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경험에 새삼 떠오릅니다. 우리 아주 일찍 결혼을 해서 아내가 28세가 되기도 전에 다섯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그 때 제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았다면 우리 아마 지

금 자녀가 하나도 없었을런지도 모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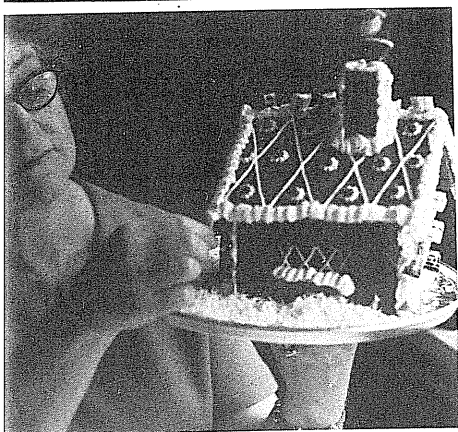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방법대로 성스러운 결혼을 하고 지상에서 번창하라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계명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후에 자녀를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지상에 온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리를 탐구해야 할 때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의 반 수는 삶을 막으려 하며 반 수는 삶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소홀히 할 때 곤란을 받게 되는데, 이는 거룩한 주님의 일의 순서로 볼 때 여성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의 하나이며 남편의 참된 동반자요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없이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고 의로운 죽음을 감수할 수 없다.”라고 심오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 2:18)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은 뜻 깊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전 11:11) 그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으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성스러운 결혼을 한 자만이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쳤고 현세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고 조오지 알버트 스미스¹ 대관장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여성은 남성의 머리 뼈로 만들어져서 남성을 지배하거나, 그의 발 뼈로 만들어져서 남성의 발로 짓밟히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며, 그의 옆에 서서 그의 동반자가 되고 영원히 함께 살 배

1. 스미스, 조오지 알버트(1870~1951) 교회 의 대관장, 1945~1951.



필이 되게 하신 것을 상징해서 그의 옆구리 뼈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일부 남편이 남편은 가장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여 그의 아내는 남편의 모든 법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부리감 영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남편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굽히며 아내와 자녀에게는 훈계와 모범으로써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가르치십시오.”(부리감 영 설교집[테저렛 출판사 1925] 306~307페이지)

이것은 남편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아내가 남편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떠한 여성이라도 주님의 계명을 어겨 가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 강요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 순종하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남편에게 명을 한다고 말한 사람

은 결혼 생활을 깊이 이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자매님들이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의 결혼 상대자에게 현명하게 적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훌륭한 아내는 언제나 남편에 순종하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남편에게 명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까지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한 바를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 대관장은 구원의 계획으로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자매들은 자녀를 갖지 못해서 비통해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수많은 자녀가 있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약에 성실하다면 여러분은 모든 백성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설교집, 310페이지)

나는 여러 차례 결혼을 집행하면서 젊은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부드러운 친근감이 결코 도를 넘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1. 나포레옹(1769~1821) : 불란서 황제. 1804~1815.
2. 비처, 헨리워드(1813~1883) : 미국 신교목사, 편집인.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사고력이 빛이 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아름다운 낭만의 꿈을 간직하려면 건전한 말을 하고 영적이고 고상하게 사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머니가 되는 축복에 관해서 헨리 링크 박사가 쓴 ‘자랑, 결혼, 자녀’라는 제목의 글이 생각납니다.

“나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부부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강한 약속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강한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쾌락에서 새로운 삶으로 집약된 헌신의 단계로의 도약을 뜻합니다. 그들의 지도 원리는 방종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안전함을 제공해 주는 남편의 능력에 대한 아내의 신임을 뜻하며 남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반영해 줍니다. 그 결과 영적인 안전함은 물론 물질적인 안정감마저 불러 일으켜 줍니다.”

어머니로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에 관해서는 언급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나포레옹¹은 캉팡 여사

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불란서의 젊은이가 훌륭히 교육을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훌륭한 어머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이 말에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헨리 와드 비처²는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의 교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수차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성공적으로 대가족을 이끈 어머니에게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나의 이러한 질문에 어느 자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자 항상 갈릴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우리는 첫 아이 때 큰 고생을 했어요. 둘째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나의 경험으로는 첫 아이에서 단산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자녀를 더 두라고 권고

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권고를 따르도록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아이다호 주의 어느 스테이크를 방문했을 때 나는 어느 자매로부터 참다운 어머니상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 스테이크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보조 조직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부부가 동시에 가정을 비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심한 비평을 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지나친 것 같았습니다. 보좌인 한 형제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모두 사임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였으며, 나도 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의 모임에서 나는 우연히 상호 부조회 회장과 나란히 앉게 되어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홉 자녀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훌륭히 자녀를 키우고 동시에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모든 시간을 바치시는 비결을 몇분 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녀가 무어라고 대답할런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으며 다만



내가 바라는 대답을 그녀가 들려 주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글쎄요. 무엇보다도 저는 성실하신 어머니의 권고와 모범을 따를 뿐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키우신 것 처럼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생

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훌륭한 어머니의 인품은 영원토록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맡은 바를 다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범을 따라 자기의 맡은 바를 성실히 해 낼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남편에게 시집을 갔지요. 아빠와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언제나 함께 앉아 아빠가 집회에 갈 때는 제가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제가 모임에 갈 때는 아빠가 애들을 돌 볼 수 있게 하여 모두 활동적인 회원이 되도록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어린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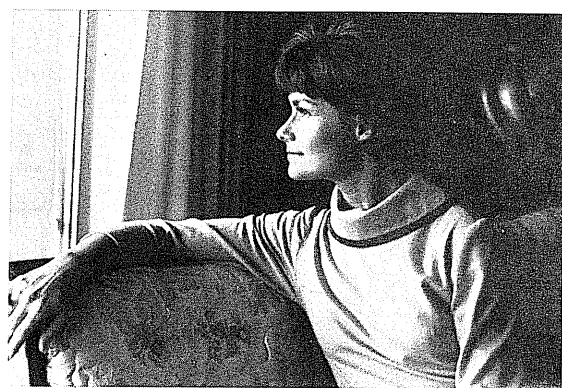
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모범으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떠나가신 어

머니의 위대한 모범, 아들과 딸들을 기르는데 보여 준 남편의 도움, 구세주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강한 간증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다면 그들이 자라고 있을 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자매님들에게 좀 미묘한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아내가 일을 해야 할 경우나 미망인이 되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할 경우이라도 자매님들은 결코 가정에서의 의무나 보살핌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자녀들의 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나는 오늘날 여성들이 급변하는 생활 속에서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그들의 파장을 느낄 수 있고 어려움과 위험과 재난의 징조를 알아차리는 어머니의 직관력이 있다면 그들은 그러한 위험 속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부대관장이었던 고제이 루우벤 클라크 2세는 그의 연설을 통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다음은 그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훈련 작업은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의로운 사람에 의해 인도되고 해의 왕국을 향해 성약을 맺은 아버지나 어머니에 의해 건설된 가정을 위해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틀림없이 기도의 집이어야 하며, 주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하며 성적인 순결함이 있어야 하며 행복으로 가득차야 합니다. 사회적인 율법이건 교회의 율법이건, 큰 법이건 작은 법이건 모든 법에 순종하는 가정, 자비와 인내와 예의와 인고, 가족의 충성심, 헌신, 영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정, 불타는 간증과 복음의 지식이 가득찬 가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죄를 피하고 요구되는 봉사를 다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미망인이 있다면 그러한 자매는 감독이나 상호 부조회의 회장을 찾아 가야 합니다. 상호 부조회의 자매는 그러한 자매의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그녀가 멀리 자리를 떠나야 할때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머니의 보호를 꼭 받아야 하므로 어머니가 아이를 두고 멀리 갈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복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지방 봉사 단체의 만찬회에서 어느 저명한 연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에는 많은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가 일어난 다음 이 범죄 문제를 다루고, 마약 중독자가 생긴 다음 마약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기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곳이며 그들의 습관이 창조되는 곳이며 그들이 세상을 살아 갈 힘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기성 세대에 반발을 느끼는 사람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사회로 물고 갑니다. 푸에르토 리코의 저명한 관리인 이 연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습니다. “가

족을 기본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날 우리는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똑같은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가정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계통을 통하여 가정의 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영원히 감사해야 하며, 신권이 중심이 된 가정 복음 교육은 가정의 밤을 갖지 않는 가정이 이를 가질 때까지 권고해야 합니다.

어제 나는 교회 본부 건물의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자 그녀는 “저는 몇달 전에 개종한 신 회원이라합니다.”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남편되시는 분도 회원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닙니다. 전 여덟 아이들과 혼자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외롭게 생

하지 마세요. 자매님은 가정 복
교사나 감독과 가까이 있지 않
니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리
제님 저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
사와 감독이 있어요. 우리는 모
잘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를 굶어 보시는 하
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생
명을 돌보시는 신권 소유자가 있
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15년간이나 아내 없이 폴
레이크 시에서 살아온 어느 가
정 만찬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
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세
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든 자녀
가 어머니의 역할을 맡아 했습니
다. 나는 어떻게 어머니의 도움
도 없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창가
로 데려 가서 하이랜드 파크 워드
건물을 가르쳐 보였습니다. 그는
“저 건물이 보이시죠. 교회에서
모두 배운거예요. 가정에서 자녀
들을 돌볼 수 있게 가르쳐 준 교
회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가족을 소홀
히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
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

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찾
았는지 혹은 아내 조안이 찾아 나
에게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웨미
리 씨클이라는 잡지에서 뜻밖에도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가 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녀의 글을 읽고 그녀도 상호 부
조회 회장을 할 수 있겠다고 생
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
이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
게 노력을 합니다. 나는 자녀들
과 같이 나눌 시간을 내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남편과
나는 시간만 나면 우리의 삶을 그
들과 함께 나누려고 시간을 갖습
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이를 만
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어느 판사가 “청소년 범죄를 방
지하는 가장 좋은 예방책은 무엇
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
다. 뉴욕에서 온 이 판사는 “아
버지가 가정의 역할을 다 해야 합
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살펴보십시오. 십이사
도 중 두 형제가 어느 스테이크
를 방문했는데, 그 중의 한 명은
나로, 여기서 우리는 어느 관리
역원의 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

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와 남
편은 이혼의 단계에까지 이르렀
습니다. 우리가 이 부인과 이야
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집에 고용된 식모나 다름
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
편은 자신을 잃고 사업과 교회 일
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
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녀는 이러한 점에 몹시 분개하여
남편으로부터 그녀의 애정을 갈
라 놓는 불량배의 손길을 찾아 헤
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자매는 남편이 자
기와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전
혀 없다고 불평을 토로하였습니
다. 남편이 이렇게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기회를 만
들게 투쟁을 해서라도 여러분과
남편과 자녀가 함께 시간을 갖도
록 하십시오.

또 다른 중요한 일로 온정에 찬
봉사가 있습니다. 나의 아주머니
인 자넷트 맥무린은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녀는 미망인이 되어서 딸과 함
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
침 그녀의 딸이 그녀에게 와서는
“어머니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아시다시피 남편이 일을 못한지가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오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라고 물었습니다.

자넷트 아주머니는 옷을 차려 입고 집 주변을 정리하고는 다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평생 동안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문에서 푹크 소리가 들렸으며 이웃에 사는 어린 소녀가 양팔에 음식을 한 아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이 미망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부엌으로 안내했고 “고맙다. 어머니께 가서 오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음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려다오. 우리 집에는 양식이 다 떨어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소녀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고, 조금 있다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시 찾아 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부엌 식탁위에 내려 놓으면서 “이번에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제가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아주머니 자넷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니란다. 이번에는 약속을 성취하게 된 것이란다. 15년전 너의 할머니가 임신을 하고 계셨을 때 양식이 떨어져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고 영양 실조에 걸렸었다. 그때 나는 어린 소녀로 그녀에게 양식을 갖다 주었고, 너의 할머니는 그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고 너의 어머니를 낳으셨다.” 그런 말을 하고 그녀는 “주님께서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의 어머니가 태어 나실 수 있게 할머니께 전한 양식을 네가 다시 우리에게 가지고 온 것이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온 정에 찬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베냐민 왕은 봉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하여 구걸하는 자를 거절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주지 못하나, 내가 지닌 것이 있으면 주리로다. 이렇게 하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진대 죄가 없으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 받리니, 너희가 갖지 못한 것을 하였으며 정죄받음이 마땅하리다.”(모4 : 24~25)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현으로 해의 왕국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의 형 엘빈을 보으며, 엘빈은 침례를 받지도 않고 교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해의 왕국에 가게 되었는가를 궁금히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자와 그들이 오래 살았다면 복음을 받아 들였으리라고 여겨지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을 물려 받는 후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 2권 380페이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내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매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실 것이며 다음 세상은 의



로운 일을 하고자 마음 속에서 간절히 바랐으나 다른 사람의 과오로 인해 이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구세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때 이러한 것을 가르쳐 강인하게 자라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길을 이탈할지도 모르나 여러분의 사랑과 신앙이 그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는 없다.”라고 하신 맥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이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가정에 실패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열 여섯이나 열 일곱 살이 된 자녀가 고칠 수 없는 망난이라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항상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현재있는가정에서 부터 시작하라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십이사도

나는 오늘 신권을 소유하신 가장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특히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거나 비활동적인 형제를 남편으로 모신 상호 부교회 자매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활동적인 남편을 모신 자매님께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매님께 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비회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방금 아직 회원이 되지 않은 남편을 모신 자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 주말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끈질기고 인내심이 강한 아내의 권고로 교회에 나오게 된 스테이크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종종 아내가 남편으로 하여금 회원이 될것을 진실로 바라고 그에게 참된 권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남편되시는 분도 굳이 이를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러한 문제에 부딪쳐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분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 교회를 찾거나,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오랜 기간을 망서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꼭 후회를 하게 되고 “왜 내가 좀 더 일찍 교회를 몰랐던가? 복음을 배워서 발전하기란 너무 늦었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일꾼을 고용하여 정한 품삯을 주기로 한 주인의 비유를 읽고 큰 위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은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 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마20:6~7)

비록 제 십일시가 되었지만 그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였고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날이 저물어 일이 끝나자 주인은 이들 모두에게 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불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

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마태복음 20: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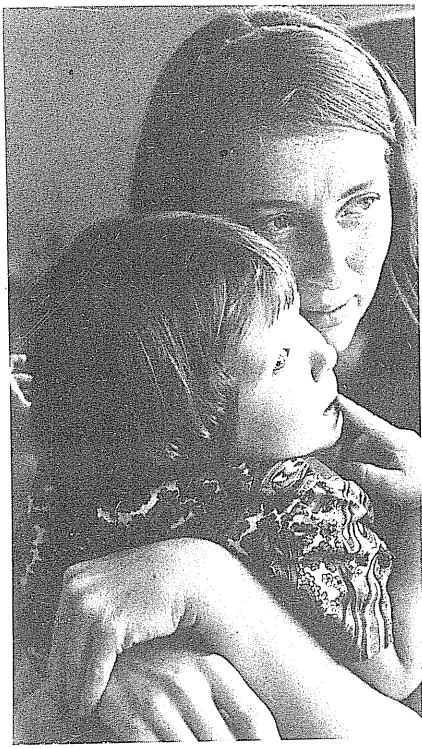
그는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의 왕국의 문은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간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신앙과 욕망만 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실한 가장이요, 교회에서 활동적인 형제인 남편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완전히 희망을 잃은 어느 자매가 침통한 말투로 “기적이나 일어나야지 도리가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기적을 바랍니까? 기적보다도 더 훌륭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나는 자매들에게 오늘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남편을 활동적인 회원인 것 처럼 대하며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이루게 해 줄 것이라는 신앙의 태도로 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나는 그

여러분이 현재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모임에 참석했던 어느 자매로부터 한 통의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축복사는 축복에서 나의 부드러운 설득과 인내와 사랑과 이해로 남편은 교회에 관심을 보이며 복음을 받아 들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지 알겠지만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과 성령이 함께 하도록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복음을 알고 이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항상 부드러움과 사랑과 이해심을 갖고 있지 못하지나 않을까 혹은 그와 더 닮지나 않을까 하여 걱정을 하였으나 이러

한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였으며 이러한 도움은 형제님으로부터 우리가 남편에게 교회 회원처럼 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찾아 왔습니다.

“며칠간 저는 그대로 실천을 하였으며 이것은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남편이 성 신권을 소유하게 된다면 나는 보다 더 순종심이 강한 아내가 되고 그의 신권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워졌으며, 만일 내가 부드러움, 사랑, 이해심을 지니지 못한다면 나는 가정에서 신권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자매는 희망에 찬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의 남편과 저와 우리의 여섯 자녀들은 신전에서 인봉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된 가족으로서 주님께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는 남성의 인품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 몇 가지의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남성은 가정에서 의롭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해 줍니다.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나이2:5)

아내가 되는 사람이 남편보다 먼저 교회에 들어 왔거나 결혼 시에 회원인 자매는 흔히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되는 남편은 그러한 일이 자신의 일인지를 알면서도 그녀에게 보조를 맞추는 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가 그녀를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히 남성은 불안함을 느끼며, 뒤로 처

여러분이 현재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로부터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을 다시 찾을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남성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미묘한 느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흔히 여성은 남성을 교회의 활동으로 인도하나 이곳에서 빨리 그 남성이 자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가정과 가족은 교회의 한 단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한번만이라도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의 집회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활동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리 부대관장님께서 그와 가까운 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분이란 지금 우리가 한 말로 판단해 본다면 비활동적이지만 리 부대관장님은 그 분이 훌륭한 성도라고 알고 계십니다. 집을 나와서 다른 건물로 가는 단순한 행위를 우리는 교회에서 활동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

작할 일은 아니지만, 교회의 집회에 그러한 사람을 참석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늦게 이루어 집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합니다.

교회에서 안정된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새롭고 다른 세계이며, 그는 또한 아직까지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껴 교회에 있기가 불안스러울 것입니다. 그가 집에 있는 동안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가 집에서 행한 일을 올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의 상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가정에서 그가 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여러분은 현재 자기가 위치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일 여러분의 남편께서 교회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

끼신다면 그가 집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 해보십시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상호 부조회가 그러한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상호 부조회 앞에 놓인 가장 큰 목표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일깨우는 자매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비활동적이거나 비회원 가정의 가족을 포함한 연구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도 꾸준한 설득 끝에 가정의 밤을 갖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이러한 가정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편안한 가정의 분위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채택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로써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편안함을 느꼈을 때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가정에 가지고 간다는 것은 가족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게 해 주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물론 가정의 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리 준비된 것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에 적합할 수 있게 계획된 가정에서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임과도 같은 모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거나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란 갑자기 일어날 때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기적이란 서서히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줍니다. 나의 누이는 17년의 인내끝에 이러한 일을 이루었고 지금도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활동적인 회원이 되는데 30년이 걸린 어느 감독을 나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급히 뛰어 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지 개의치 말고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더서에는 다음과 같은 뜻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이더 12:6)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건설하면 이러한 기적을 낳게 해 줍

니다.

이러한 시련을 받고 있는 어느 가족이 가정의 밤을 실시한지 몇 달만에 "당신은 가정의 밤을 가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우리가 가정의 밤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모르는 주가 하루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부인은 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인봉을 받기 위해 신전에 간 날 저녁이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벨기세텍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은 가정의 밤이 가족생활과 영적인 삶의 참된 중요성을 알게 해 준데에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신전에 가던 날은 저의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십일조를 지불하고 남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못했답니다."그런 다음 그녀는 남편을 바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당신이 우리를 모두 신전에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남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가정의 밤은 남편이 가르치는 때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그래요. 난 그렇게 잘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매는 다시 "아니예요. 당신은 정말로 잘 가르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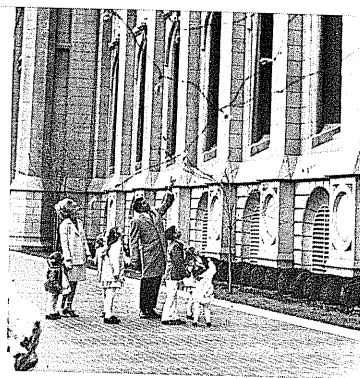
그러자 그는 사내답지 않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아다시피 나는 언제나 집에서는 말썽을 부렸지만 가족을 가르칠 때만은 전에 갖지 못한 느낌을 갖고 성의껏 했어요."

이제 이 가정은 교회에 나오며 아주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터 교회의 모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처음부터 기적을 이루는 일을 착수하지 않거나 원하지를 않는다면 여러분이 더욱 더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들이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몇 년 전에 터틀 형제와 나는 다른 도시로 떠나기 전 날 저녁 일찌기 교회의 지역 지도자를 만나려고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때까지 직장

여러분이 현재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



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의 아내도 부엌에서 일을 하느라고 몹시 바빴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식당 테이블로 안내를 했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도시락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날 저녁 지부에서 도시락 만찬회가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하루 종일 가장 훌륭한 도시락을 준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 오자 그녀는 오븐에서 뜨거운 체리 파이를 꺼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녀는 우리에게 아이스 크림을 덮은 뜨거운 체리 파이를 대접해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양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남편을 힐끔 쳐다 보았는데 나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역시 파이를 좋아 하나 지금 이것을 듣게 되면 저녁 도시락에 식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를 그냥 이곳에 앉혀 두고 우리가 먹는 것을 보게만 하는 것도 친절한 방법이 못된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먹는다면 내가 온 종일 성의껏 만든 도시락을 즐기지 못하게 될게 뻔하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내심의 갈등이 드디어 끝나고 그녀는 파이를 찢

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것보다 크게 찢은 파이에다 아이스 크림도 좀 더 얹어 남편의 식탁 위에다 갖다 놓고는 남편을 살짝 밀고 “여보 복음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을거예요. 그렇지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후 나는 남편을 그런 방법으로 끌려 주면 안된다고 그녀를 놀리자 그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는 나를 버리지는 않을꺼예요. 저는 남편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만 오늘날 상호 부조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이러한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넣어 주고 가정에 천국을 만들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매 여러분, 남편에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 주시고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목적임을 알게 하십시오.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이 그러한 것을 알아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할 때 화가 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남성이란 그런 것을 알아 차릴 정도로 민감하지 못합니다. 남성이란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무감각하고 무디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란 아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땅히 알아야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 남편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으며 여성이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어제 어느 가정 복음 교사가 그의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기도를 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었으나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기도를 부탁받았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이 남편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순진한 분이었는데, “난 정말로 몰랐다고요. 난 그것이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것인 줄 몰랐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으며, 여러분이 복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 때문에 더욱 더 남편을 아끼게 된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아내와 어머니와 사랑의 동반자로서의 여러분의 선함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으로부터 자란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제 나는 혼자 남게 된 사랑스러운 자매님들께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나, 이혼이란 비극을 통해 남편을 잃으신 분이나, 피치 못할 죽음을 통해 남편과 사별한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혼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적인 고통이나 외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큰 보상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동시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 줄 수 있는 힘을 주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총 관리 역원들 가운데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나는 대회에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소년 시절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보호할 신권이라는 거처가 있습니다. 와드의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나 그가 임명하는 다른 역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들을 키우는데 남성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가정 복음 교사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다는 점을 마음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

러분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주님이 계시며 보상을 해주는 주님의 영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도 결코 포기를 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주님께서는 비유에서 하신 “내가 너희에게 당당하게 주리라”(마20 : 4)는 말씀처럼 여러분께 보상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마서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며, 여러가지로 예증된 것을 보아 작은 수단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였느니라.”(엘마 37 : 6)

그러므로 여기에는 수저와 식기를 들고, 앞치마와 빗자루에, 파이 오븐과 믹서에, 어머니의 모습, 인내, 사랑, 실과 바늘, 용기의 말, 이상적인 가정을 가꾸는 믿음과 결단력을 가진 사랑스러운 상호 부조회의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상호 부조회는 여러분 자신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힘이 한데 뭉쳐져 현세와 영원토록 하나로 인봉될 것입니다. 남성 가운데는 기꺼이 주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사

람과 이러한 일을 위해 합당한 사람도 있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나 이들은 모든 주님의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일에서 쳐져 있거나 이러한 일을 모르는 남편이나 가장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은 정말로 이들을 돌보는 주님의 보살핌으로 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된 자매님이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자매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부조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이제 강하게 된 아내나 어머니가 되시는 자매님께서 꿈을 이루시도록 주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살아 계십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입니다. 기적의 날은 끝나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그와 함께 생각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벗 구독 신청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벨 에스 스탠포드

상호 부조회 본부 회장

대체로 보아 나는 말일성도의 부모들은 가정이나 자녀들의 복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믿읍니다. 또한 나는 말일성도의 자녀들은 가정에서의 표준은 물론 부모의 가르침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고 믿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교회의 가르침을 대표하고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젊고 발랄한 수많은 남녀를 선교사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생활 환경은 더욱 더 부모의 관심을 요하게 되었고, 대개의 경우 바람직한 부자 관계나 자녀와 가정의 관계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가족과 그의 성스러운 운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재강조되어야 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지침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라고 나는 믿읍니다.

나는 잘 진행된 가정의 밤이 얼마나 의미있고 아름다우며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과연 무엇



인가를 간단히 요약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의 가족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좋지 못한 토질 때문에 농사가 완전히 실패를 하여 인근 다른 주로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의로운 아버지는 그래도 실망을 하시지는 않았읍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이사를 할 것인가를 상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현명하고 이해심이 많은 영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심한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도 불평 없이 굳건히 참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여덟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충성심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만행이 동생에게 보인 애정이 너무도 강렬했기 때문에 끝없는 박해와 말 못할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었으며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비유됩니다.

1971년 8월 2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거행된 지역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함.



의 마음을 알고 있는 천사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말을 믿으시리라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소년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문제를 어머니에게도 알렸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의 일이 끝난 저녁에 가족을 한 곳에 모으고, 젊은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후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가 행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업에 관해 받은 경험을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소년은 새로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밤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을 그녀가 쓴 예언자의 생애라는 책에서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읽어 보지도 못한 열 여덟살 난 소년에게 모두 진지한 관심을 집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들과 딸들이 원으로 둘러 앉아 있는 이러한 가정의 모임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자녀들보다 더 책을 속독하지는 않은 것 같

았으나 훨씬 더 깊이 연구하고 사색했던 점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에 빛을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과 인류의 구원에 대한 보다 완전한 지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다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단합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깃들었고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요셉 스미스의 전기, 그의 어머니인 루시 맥 스미스 저[북크라프트, 1958]82~83페이지) 나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인상적인 가정의 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은 가정에 단합과 행복이 깃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 가정의 밤은 요셉이 그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뜻 깊은 기쁨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모임은 예언자와 회복된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그의 확신과 그러한 사업을 위한 그의 헌

어느날 가족의 세째 아들인 14세의 이 동생은 놀랄만한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그를 완전히 압도하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천사가 그 소년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천사의 두 번째 방문을 받고 그 소년은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소년은 아버지가 그토록 의외의 경험을 믿어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의 형 하이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가족의 충성심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이 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왜 천사는 그가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하였겠습니까? 왜 그의 어머니나 그의 헌신적인 형이나 절친한 친구나 혹은 교회의 회원에게 말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주요한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셨습니까?

가족을 함께 단합시키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이 아들의 놀랄만한 이야기를 다른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영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농장 일에 바쁘고 시달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묵살해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어머니가 집 밖의 일이나 활동에 전혀 무관심하여 가족을 함께 모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이 문제는 우리 둘

이 해결합시다. 큰 아이들은 제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작은 아이들은 일찍 잠을 자야 해요.”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어머니가 집에 제시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돕거나 가족이 모일 수 있게 주선을 해 주지 못했다고 가정해 해 봅시다.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한 상황을 잘 듣거나 믿어 주지 않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조소하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완전히 압도되고 놀라 있는 이 소년에게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겠습니까?

흔히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그들은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추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족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더욱이 부모들은 어린 아이의 거룩한 사명을 알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주님으로 부터 선택된 훌륭한 사람들을 교회의 관리 평의회에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제시와 영감을 통

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족 단위의 영원성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족을 함께 단합시키고 그들의 영원한 복리를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지침을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하므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교성 78:7)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관리 신권의 목소리나 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정의 복리를 위한다면 가정의 밤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 이러한 형제들의 권고를 따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일성도 가족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圖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빅타 엘 부라운 감독(관리 감독단)

나는 최근에 의외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진리의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러한 경험을 말씀드리려 보겠습니다. 금년 6월에 나는 유타 주립 형무소에서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과 교회 사회 봉사과가 개최한 신학 연구원의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17명이 상장을 받았는데 즉 9명이 1년 수료증, 5명이 2년 수료증, 3명이 3년 수료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외에도 24명이 종교 반에는 참석을 했으나 수료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단 2명만이 그날 출옥을 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돌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서는 “늘 함께 합소서”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과 같은 아름답고 심금을 울리는 찬송가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 두명이 이중창으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남자 죄수들이 그들이 받는 축복과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 준 하나님께 진지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몇 명은 연단 위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간증을 하였으며 그들에게 보여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와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들어 온 사람이지만, 형무소에 들어 간 적이 없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지닌 이 두 사람에게 관해 잠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의 실

제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릴 첫번째 사람을 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짐은 멀리 떨어진 다른 주에서 왔습니다. 그는 30이 넘지 않은 잘 생기고 윤곽이 뚜렷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질서와 사회를 불신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과탄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 오는 동안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17세에 집을 뛰쳐 나와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서 제대를 한 다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다가 마침내 쏘트 레이크 시에 왔던 것입니다. 그는 절도죄로 체포되어 형을 언도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탈옥하다가 다시 잡혔고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형기도 많이 치루었지만 아직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짐의 고민을 알고 있는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이 그를 말일성도 원목을 찾아가 보도록 권했습니다. 이것이 짐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이 형무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자기가 알고 있지 못했던 자유에의 첫 발을 디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감자들을 위해 교회에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에 몇 주 참석을 한 그는 담배를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 사회 봉사 기구가 마련한 여러 가지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그 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는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낙담하고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격려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이란 고차적이고 난해한 공식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며 간단하고 평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의 진실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확실하고 영원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악습관을 극복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정 복음 교사가 와서 가진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관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 오는 두 명의 가정 복음 교사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여러 차례나 완전히 절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친 자식이나 어린 아이처럼 사랑하여 주었기 때문에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1970년-6월 16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6개월 동안에 나는 사회의 혼란한 생활을 떠나 이 율타리 안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내가 형무소에 들어 오기 23년 전보다도 더 훌륭하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나는 형무소에 들어 올 때까지는 말일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형무소에 들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이곳에 있는 동안 얻은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말일성도들이 수감자를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졸업식에 참석한 어느 젊은 수감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그의 목표는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출감한 후 사회에 진 부채를 갚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에드라는 사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 역시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는 아홉 살부터 훔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세 때 자동차를 훔친 이유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절도죄로 붙들려 다른 주의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율타주에 왔으며 다시 절도죄로 붙잡혀 율타 주립 형무소에 수감된 것입니다.

에드도 짐과 마찬가지로 형무소에서 거행되는 교회의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가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려고 하면 그의 동료 수감자들이 그를 놀리고 조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아무도 그를 말리거나 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드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를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가정의 밤을 그와 함께 갖기 위해서 가족까지 형무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에드를 자기의 형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가족의 일원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드는 출감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으므로 졸업식에서 증서를 받기 위해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도록 초청된 연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서 주머니로부터 한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청중에게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글을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음 목요일 제가 침례를 받아도 좋다고 한 침례 추천서입니다.” 에드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받은 다음 그는 혼자 구석진 방으로 들어 가서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그가 아론 신권의 집사직에 성임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들 젊은이들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형무소에 갇히게 됨으로써 육체적인 자유를 잃었으나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야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지상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출감되는 것으로 그들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느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찾았던 것입니다.

비록 형무소에는 갇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짐이나 에드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알코홀, 마약, 부도덕, 이기심, 부정직, 나태, 방탕 등 개인적인 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형무소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훨씬 사람을 구속하고 옥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과 에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인간에 의해서 계획된 한계를 초월하여 자유 속으로 도피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그의 거룩한 계획을 받아 들이고 그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顯

매리 죠이스 켈스 씀/테드 나가다그림

엘로 리프의 선물



엘로 리프는 깊고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 옆에 이끼로 덮여 있는 바위에 기대고 누워 있었다. 꿈을 꾸는듯 그녀는 깊은 물 속 조약돌 사이를 분주히 돌아 다니는 큰 접이 박힌 송어를 바라보았다. 양쪽이 마치 무지개의 빛깔처럼 반짝이는 송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엘로 리프는 그것을 잡고 싶은 마음이 나질 않았다. 금빛

색깔을 한 나방이가 물가를 나르고 있었다. 송어는 놀랄만한 속도로 올라와서 그 나방이를 잡아 먹었다. “어머나,” 인디안 소녀는 나방이가 잡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섞인 한숨을 내 쉬었다.

그 때 이상한 소리를 엘로 리프는 들었고 재빨리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녀는 놀라움에 싸여 멀리서 두 마리의 황소가 끄는 큰 배와 같은 마차가 오는 것을 주시해 살폈다. 그녀에게 들리는 이상한 소리는 기름이 없이 나는 마차 바퀴의 마찰 소리였다.

마차에 쌓여 있는 뽕얀 먼지나 달려오면서 일으킨 먼지로 보아 이 마차가 사막을 건너왔음에 틀림이 없었다. 마차에 탄 사람들은 밤을 새우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낮 동안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 열 때문에 아무도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차는 포장마차도 없었다. 다만 마차의 꼭대기에 걸쳐 있는 쇠막대에 다 타다 남은 몇 조각의 형겅이 붙어 있

을 뿐이었다. 마차의 양면에는 물통조차 보이지가 않았다. 가까이 기어 가서 보았을 때 옐로 리프는 마차의 중심부에 큰 화살이 꿰뚫은 자리를 볼 수가 있었다.

이 가족은 오랜 마차 여행에서도 모두가 살아 남은 것 같았다. 그녀의 적이었던 동부에 사는 인디안족이 조약을 어기고 출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마 이 인디안족이 이 마차를 공격하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옐로 리프는 이 가엾은 가족에 동정심이 갔다. “여기에 있다간 살아 남지 못하겠지.”라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옐로 리프는 한 아기를 안고 다른 두 아이를 데리고 그늘을 찾아 해매는 여인을 보았다. 잔뜩 지쳐있는 남자도 이곳 저곳을 살피며 쉴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물이 필요하겠구나. 목이 말라 죽을지도 모르지.”라고 그녀는 잃어 버린 물통을 생각하면서 중얼거렸다. “만일 그들이 소 대신에 말을 데리고 다녔다면 그 말은 물을 찾아 그들을 물가로 인도할텐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옐로 리프는 도와주고 싶었으나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만일 그녀가 그들이 쓰는 영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남자는 총을 가졌고 자기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틀림없이 총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실망하여 돌아 가려고 했다.

연약한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가 그녀의 발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마치 자기 동생의 울음 소리처럼 들렸다. 다시 뒤를 돌아다 보니 아직도 주인 남자는 햇빛에 바싹 마른 바위 사이를 이리 저리 다니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는데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곧 갈등과 지침으로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또 다른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왔으며, 옐로 리프는 냇가로 돌아갔다. 아름다운 꽃을 꺾어 담은 흙으로 만든 화병을 비우고 그녀는 차거운 물을 담았다. 잠시 주저하다가 그녀는 조용히 산등성이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어머니는 그 밑에서 어린 아이를 꼭 껴안은채 눈을 감고 거의 죽어 가고 있었다. 모든 위험을 잊고 그 인디안 소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얼굴에 자기 손으로 물을 떠서 뿌려 주었다. 그녀의 푸른 눈은 서서히 뜨이기 시작했고 옐로 리프의 검은 눈을



의아한듯이 쳐다 보았다. 한참 동안 그녀는 숨을 죽이고 이 어머니가 자기를 보고 총을 가져 오라고 남편에게 소리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정신을 쏟느라고 아무 것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마차에 가서 컵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살폈다. 그녀는 애기를 보고 나서 어린 아이들이 입은 옷도 식히기 위해 물에다 적시었다. 그런 다음에야 그녀도 물을 마셨다.

어린 아이들을 살피 보느라고 옐로 리프는 주인 남자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안돼요. 프랭크,

이 소녀가 물을 가져왔어요.”라고 소리를 칠 때까지도 그녀는 위험을 알지 못했었다.

그 남자는 어리벙벙해서 겨누었던 총을 내렸다. “물이라니? 이 건조한 지역에서 어떻게 물을 가져 왔지? 풀 한포기도 나지 않는데.”

갈증을 식힌 다음 이 키가 크고 몹시 수척한 남자는 물 그릇을 가르키면서 어디서 물을 가지고 왔는가를 물었다. 그의 지친 얼굴은 옐로 리프가 가르키는 절벽 쪽으로 향했다.

“마차를 저곳까지 도저히 끌고 갈 수는 없지.”하며 그는 무거운 마차와 지친 황소쪽으로 몸을 돌렸다.

옐로 리프는 이해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마차를 타라고 하나봐요. 아마 길을 아는 모양이에요!”라고 그녀가 기대에 차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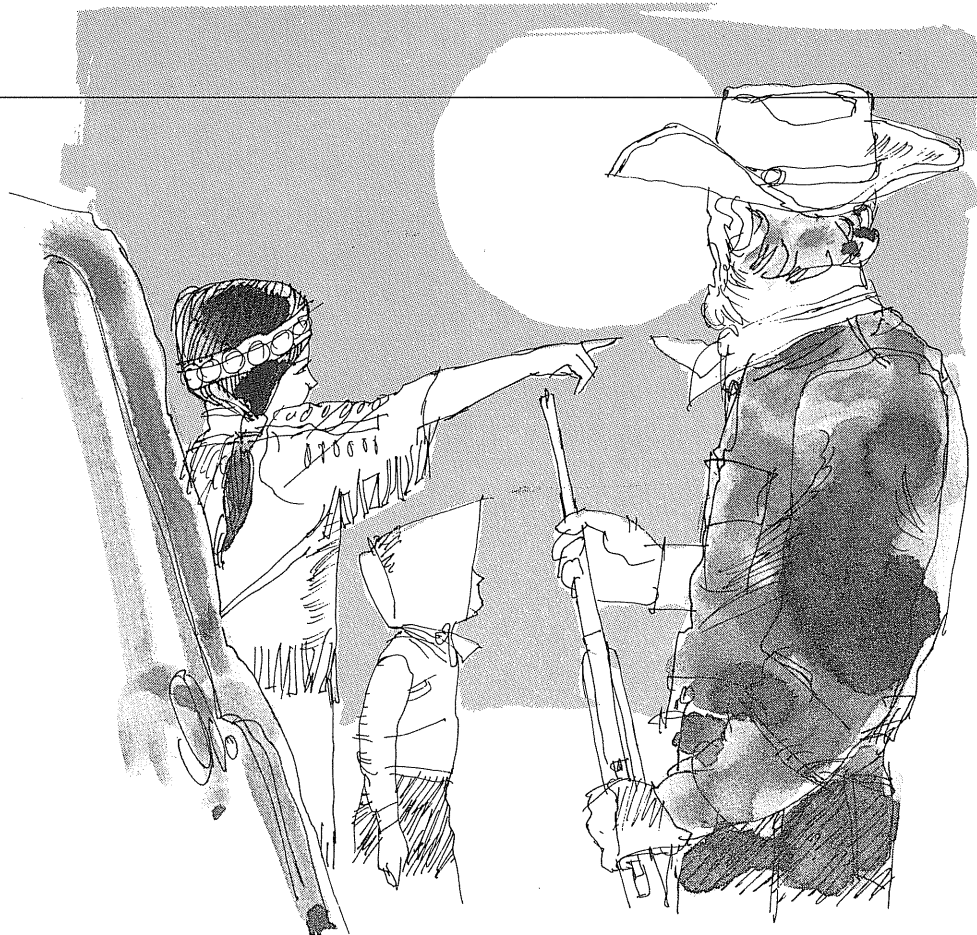
황소 앞으로 걸어간 옐로 리프는 바짝 마른 언덕을 넘어 금빛 실과 같이 보이는 시내가 흐르는 푸른 계곡으로 이들을 인도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곳은 처음이에요. 꿈에서나 그리던 곳이에요.”하며 그녀는 남편에게 기쁜듯이 소리쳤다.

“그렇군. 통나무 집도 지을 수 있겠고 땅도 고르니 참 좋군. 사라 얼마나 훌륭한 곳이요. 이곳에는 무엇이든지 다 잘 자라겠어.”하며 부드럽게 말을 하는 그의 눈은 기대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인디안 소녀가 언제 자리를 떠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옐로 리프는 이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미래의 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그들은 이 록키 산맥 가운데 감추어진 기름진 땅을 본 최초의 백인이 되었다. 이들은 이 마음 착한 옐로 리프가 자기가 아끼던 아름다운 푸른 땅을 주고 얼마나 섭섭해 했는지 알았을까?

실의가 옐로 리프의 마음에 엄습해 왔다. 갑자기 그녀는 자기가 하늘을 나르던 금빛 나방이와 같다고 느껴졌다. ㉠





엘마



마벨 존스 개뿔 옮김/아놀드 후라이버그 그림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을 영웅이 되게 기대를 하거나 여러분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성원하고 격려해 줄 때 영웅이 되기가 쉽다. 엘마는 자기 혼자만 떨어져서 외롭게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리라는 아빈아다이의 말을 굳게 믿었다. 백성들이 아빈아다이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사악한 왕 노아가 그를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제사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엘마만은 아빈아다이의 관대한 처분을 바랐던 것이다.

엘마는 노아 왕의 제사 중 한 사람이었다. 비록 그는 젊었지만 아빈아다이가 백성들의 사악함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엘마는 아빈아다이를 살려 주도록 노아 왕에게 탄원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나서 그를 쫓아 버렸다. 그런 다음 노아 왕은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엘마를 살해하도록 명했다.

엘마는 무사히 부하들의 손길을 벗어났다. 그는 그들을 피해 숨어서 아빈아다이가 한 말 중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적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엘마는 다시 성내로 들어 와서 은밀히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다. 한 두명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게 되었다. 엘마는 자기의 말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깨끗한 샘이 있었으며 근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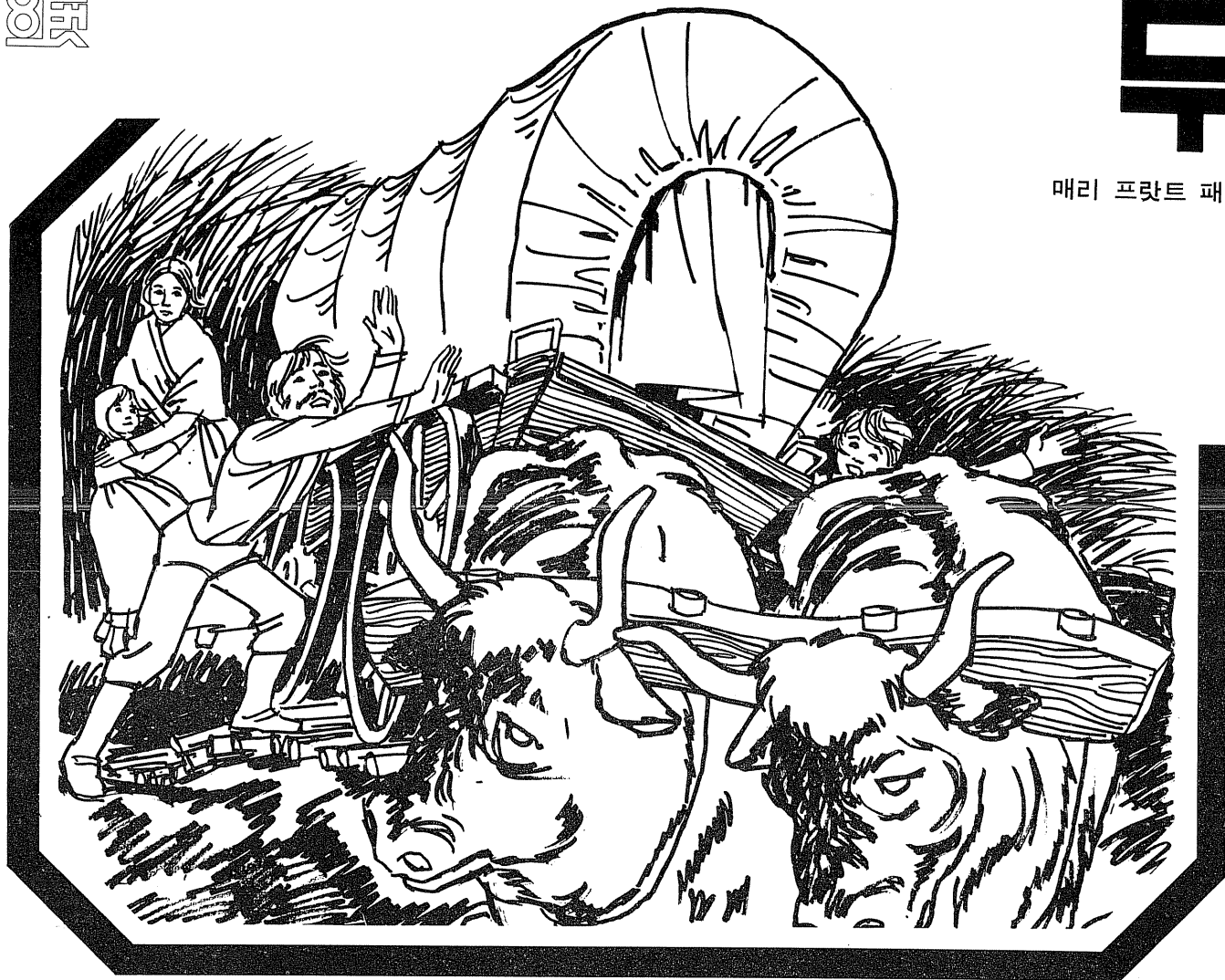
숲 속에서 엘마는 노아 왕을 피해 낮 동안은 숨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엘마의 말을 들으려고 모여 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신앙과 회개에 관해 가르쳤다. 제일 먼저 믿은 히람이 엘마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들은 둘 다 물속에 잠겼다가 영으로 충만하여 기뻐하면서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런 다음 엘마는 침례를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며 그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다.

이러한 모든 일은 물론 샘에서 행해졌으며 노아 왕으로부터 피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성역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왕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안식일에 그의 부하를 보내서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노아 왕은 엘마에 대해 몹시 분개했다. 그는 군대를 파견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했다.

그러나 엘마는 이제 홀로 있는 외로운 몸이 아니었다. 그는 왕의 군대가 진격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는 친구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천막과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피하여 갔다. 그들의 수는 무려 사백 오십에 달했다. 圖





슈가 크리크를 떠날 때 토미와 아버지가 각각 한 대의 마차를 몰았다. 토미가 마차를 몰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태양이 얼마나 세게 비추었으며 날씨가 얼마나 무더웠는 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무거운 겨울 오바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다만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채찍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는 눈이 녹아서 부드러운 진흙 속으로 마차의 바퀴가 점점 깊이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토미는 전날 슈가 크리크를 떠난 본대를 따라 갈 수 없을 것 같아 몹시 마음이 초조했다. 그는 그날 저녁 늦게야 캠프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가 있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차를 끌고 온 황소를 달랬다.

“자 이제 서서히 당겨 보라.” 하며 그는 말했다. 이 황소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였다는듯이 순순히 그의 말에 응했다. 그 황소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마차를 끌어내어서 토미는 반갑게 맞이하여 주는 친구들이 있는 캠프로 무사히 올 수가 있었다.

“네가 슈가 크리크에서 여기까지 마차를 끌고 왔니?” 하며 한 아이가 물었다.

“야 굉장한데. 나도 아버지가 허락을 하셨으면 한번 해 볼텐데……” 라고 또한 친구가 말을 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토미가 우유를 짜고, 아버지가 황소에게 사료를 주는 것을 돕는데 아무런 지장을 줄 수 없을 정도였으나 그들이 천막을 치기 시작했을 때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 닥쳐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천막이 비꼬이며 바람에 휘날렸다.

“오늘밤은 천막 없이 새워야 되겠구나.”하고 아버지께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셨다.

“아빠와 엄마는 어디서 주무시겠어요?”라고 토미가 물었다. “마차에는 식량이 가득 차서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와 베티는 엄마하고 다른 마차에서 자거라.”하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마차 밑에 잠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제가 마차 밑에서 자겠어요.”라고 토미가 조용히 말을 했다.

아버지는 즉시 대답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나 토미는 아버지의 손이 자기를 꼭 잡으시는 것으로써 자기의 이 제의를 그가 대견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소나무 가지를 모아서 땅에 깔아 진흙에 빠지지 않게 해야겠구나.”

토미는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 속에서 소나무 가지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소나무 가지를 많이 쳐 놓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나무 가지위에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천막을 걸쳐 놓고 휴대용 침구를 깔아 토미가 비에 젖지 않게 만들었다.

잠자리가 완성되었을 때 토미가 그 속으로 기어 들어 갔다. 처음에는 억수같은 비 속에서 그가 혼자 있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것처럼 큰 천둥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 번개가 나무 위에 쳐서 불이

붙는 모습을 그토록 상세히 본 적도 없었다. 그는 심한 비바람이 곧 그들을 그곳에서 내어 쫓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척 걱정이 되었다. 다른 식구가 잠들고 있는 마차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될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 보았다. 그는 겁이 나서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지만 자기가 두려워 한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해야지.” 하며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토미가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려고 하기도 전에 벌써 천둥과 번개가 그쳤다. 토미의 기도가 응답되어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게 되었다.

토미는 밖으로 뛰어 나가서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마음껏 맞았다. 거대한 불꽃이 도처에서 피어 오

마카로니로 만든 목걸이

마벨 존스 개뿔

준비물 : 마카로니 부스러기, 나일론 실(혹은 낚시 줄이나 기타 튼튼한 나일론 종류의 실), 염주, 물감, 붓, 매니큐어

마카로니 부스러기를 책상에다 종이나 보자기를 깔아 놓고 쏘는 다. 이것은 마카로니 부스러기가 땅에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모양과 크기에 따라 구별해 놓는다. 같은 크기의 마카로니를 제일 처음에 놓아 이것이 두개 이상 겹치지 않게 한다.

마카로니에 붓과 물감을 사용하여 칠한다.

원하는 색을 칠한 다음 투명한 색의 매니큐어를 그 위에 칠한다.

여러분의 목거리에 해당되는 길이에서 일인치만 여유있게 실을 자른다.

팔찌나 머리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력성이 있는 실을 써야 한다.

여러 가지 의상의 장식품이나 염주를 이용하여 다양성있게 만들 수도 있다. 실에다 염주나 마카로니를 끼기 전에 적당한 간격을 정한다. 목고리의 가운데에는 크고 색깔이 든 염주를 고르고 좌 옆에 필요한 마카로니와 염주의 수를 세어 둔다.

염주나 마카로니가 모두 실에 꿰어지면 실의 양 끝에 매듭을 지어 묶는다. 매듭에서 반 인치 길이의 실에도 적당한 모양으로 장식을 한다. 만일 목거리가 너무 작아서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미 낡아서 못쓰게 된 목고리의 고리를 이용하여 실의 양끝을 고리에다 맨다. 圖

르는 것 같았다. 잠을 자러 가는 대신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계속 비를 마음껏 즐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밤이 새도록 비가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토미는 마침내 잠이 들어 버렸다. 그는 너무도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내린 비로 그들이 "마차를 세우고 천막을 친 곳 옆에 있는 개울이 넘쳐 그의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토미는 깜짝놀라서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 빗물이 넘쳐서 마차 뒷 바퀴가 물에 잠겼어요!"

토미의 아버지는 즉시 마차에서 뛰어 내려 오셨다. 그가 그러한 광경을 보자 우선 토미를 끌어 내셨고 물 속에 빠진 마차를 끌어 당기셨다. 땅이 너무 미끄러웠기 때문에 소가 발을 딛지 못하고 자꾸 미끌어졌다.

"밑에다 통나무를 깔아서 길을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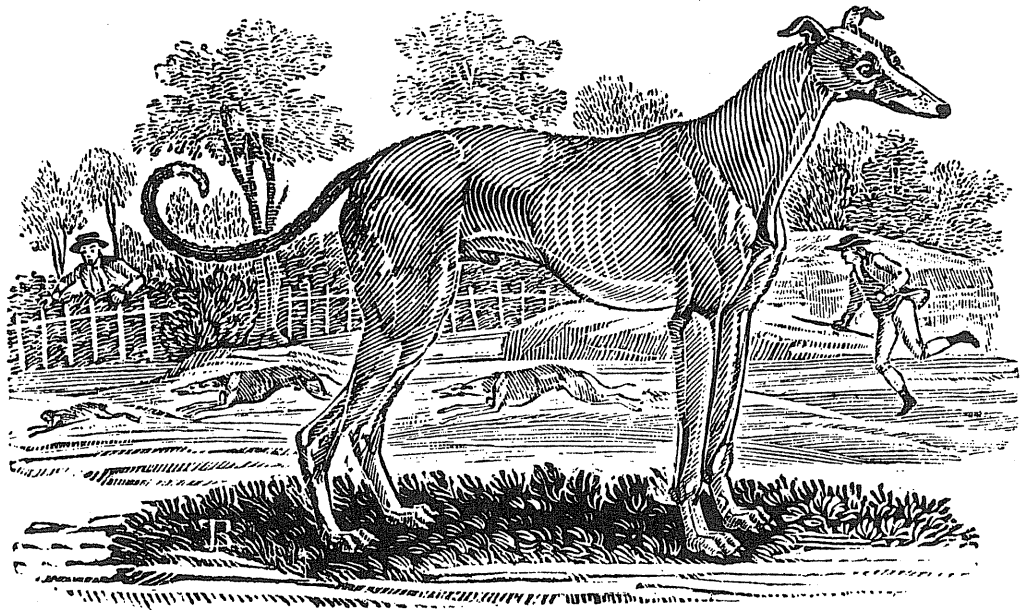
이렇게 하기 위하여 토미와 그의 아버지는 많은 나무를 베었다. 그들은 잔가지를 치고 마차 앞에만 이 통나무를 차례 대로 통나무를 깔고 수양버드 나무 줄기로 세게 묶어 굴러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 일이 끝나고 그들은 거친 풀이나 솔잎으로 이 통나무를 덮어 소의 발굽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놀란 황소들이 통나무를 밟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야, 이제 천천히 끌어 당겨라."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황소들은 힘차게 마차를 끌어 당겼다. 무거운 마차 바퀴가 진흙을 빠져 나와 거치른 풀을 밟고 서서히 통나무 길을 지나가서, 그 날 이 이스라엘의 시온 부대는 또 다른 여정에 오를 수가 있었다.

토미는 "만세!"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두 사람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서 또한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圖

가장 중요한 일들



에이 데오도르 터틀회장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몇 해 전에 나는 데저렛 뉴스지로부터 “자동 토끼”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읽은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대개의 독자들은 영국에서 있는 그레이하운드 경주¹에 참여한 개가 진짜 토끼를 보고도 이것이 실제의 토끼인 줄 몰랐다는 사실을 알면 웃을 것입니다. 그 개들은 너무 오래 동안 전기 장치가 된 자동 토끼를 쫓았기 때문에 진짜 토끼가 경기장 트랙에 뛰어 들었는데도 이 개들은 그 토끼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잃은 것이니까요.

“우리 인간 역시 이러한 자동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료 지불 수표만을 쫓고 있으며, 눈이 덮인 산 봉우리의 빛나는 태양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달력을 꼭 메운 약속에 쫓기다 보면 바로 우리의 이웃이나 병

1. 그레이하운드 경주: 전기 장치로 뛰는 토끼를 그레이하운드가 쫓는 경주.

을 앓고 있는 친구를 찾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소란하고 번잡한 가운데 사회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순진한 어린 자녀들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줄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참된 기쁨을 안겨다 주는 훌륭한 기회를 알지 못합니다.”

워즈워즈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몰두하여 우리는 조만간 우리가 가진 모든 힘마저 빼앗기게 되리라.”

“불쌍하고 눈이 먼 인간 사냥개들아! 계속해서 달려라. 여러분들은 진짜를 알아 낼 때까지는 결코 잡을 수 없게 되리라.

“그러나 진짜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쫓는 기쁨을 찾을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동반자가 이 시험에 여러 분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도전 목표를 강조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장 중요치 않은 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을 유의하십시오. (애쉬리

몬태구)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흔히 우리는 쓸데 없는 일에 너무 신경을 몰두하고 있다.”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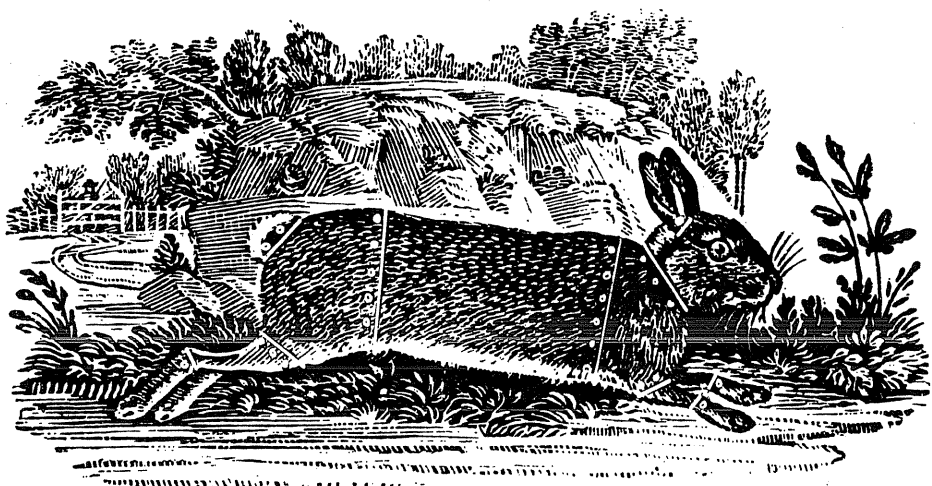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교리와 성약 121 : 34~35)

우리의 가치를 똑바로 설명해 주는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영적인 것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지 않고 “인간의 명예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잊거나 무시하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기독교적인 친절한 행동이 외면된 채로 약속과 계획의 틈바구니 속에서 질식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가장 꿈직한 과오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의 친진난만한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녀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까? 언제 아들과 소꿉이나 사냥을 가셨습니까? 언제 그가 소년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개인 달성 프로그램에 관해 권고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젊은이가 겪는 안일과 사치는 다른 어느 연령이 겪게 되는 시련보다도 심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자녀들을 깊이 주시하고 관찰하십시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십시오. 지금은 위험이 가득찬 시대입니다. 항상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안전을 찾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가정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국내적이거나 국제적인 조약이라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국회 의원이나 법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복음에서 행복과 평화가 가정에 찾아옵니다. 젊은이들은 가정에서 힘을 받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의 목적을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의 역할을 외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가 가정을 떠나 일하러 나가도록 권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장이 가족을 떠나서 유흥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위들이 가정을 약하게 해 줍니다.

어떤 가정은 훌륭한 집과 옷과 자동차와 음식을 줄 수는 있으나 참된

부성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성애란 사랑과 이해의 결정입니다. 그것은 힘과 용기와 영예입니다. 그것은 힘이요 행동입니다. 그것은 권고요 지도입니다. 부성애란 여러분 자신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능이요 모범입니다.

팩커 장로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 하셨습니다. “대개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 물질적인 면만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도하에서 쌓여진 안전함이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진실로 자녀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행복한 가정 생활의 추억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따라야 할 청사진이요, 창조해야 할 형상이며, 실현해야 할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십시오.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어머니들은 종종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업계에 발을 들여 놓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피치 못해

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역시 이런 가정도 악화되게 마련입니다. 참된 모성애와 참된 부성애는 이러한 경우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당연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할 때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공격을 지도하는 세상적인 요소를 과감히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과 관심과 수단을 바쳐야 합니다.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치를 적절히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베냐민 왕은 부모들은 “자녀를 험뵈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 4:14~15)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가르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말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보다 훌륭하고 기본

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치 못할 결과로서 50% 이상의 기혼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사회에서는 단합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확고한 유대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파탄을 가져온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장소라는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오락인 자녀들은 흔히 삶에 대한 참여 욕구가 좌절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고의 현장을 목격한 의사가 이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어린 자녀들이 본다면 이들은 봉사나 책임의 정신을 마음 속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를 너무도 중시하여 자녀와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들에게 권고나 격려를 해주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가장이나,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하여 자녀들을 방치해 두는 가정은 사랑과 희생에 입각하여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요성 93:40)

폴 포푸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이 삶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

의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부모로 하여금 훌륭한 모범을 세우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양 세대에 걸쳐 있는 큰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늦기 전에 배워야 한다고 리처드 엘 이반스 장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보다도 훌륭히 사회의 병폐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랑이 깃들고 안정된 가정보다 더 사회 안정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명하고 사랑이 많고 책임이 있는 부모의 확신보다도 자녀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이러한 장벽으로부터, [뉴욕: 하버 출판사, 1959년], 191페이지)

나는 현명하고 사랑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먼 형제님의 부모와 같이 항상 나를 일깨워 주시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항상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오늘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증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서는 오늘날에 살아 계신 예언자이며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지니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회에서 받은 권고를 성실히 따르다면 우리의 가정은 보다 훌륭해지며 우리의 봉사 정신도 보다 효과적으로 발휘될 것이며 우리의 기쁨이 보다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圖



주님의 예언자

아서 알 바셋트

주님의 예언자”라는 제목은 수염을 잔뜩 기르고 치렁 치렁한 복장을 한 사막의 지도자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의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상을 한 분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런 제목은 아담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존경을 받는 족장, 에녹이나 요한이나 로렌조 스노우와 같은 다감한 사람, 모세나 부리감 영과 같은 활기에 넘친 지도자, 바울이나 엘마와 같은 십자군적인 전사, 이사야나 요셉 스미스와 같이 예언자의 시현으로 충만한 사람 등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예언자가 다 각기 다른 점을 지녔습니다. 모두 자기의 특성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면을 지니고 있으니 즉 한 개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 신뢰, 확신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지닌 의미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언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인 요한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계 19:10)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예언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영적이며 지극히 동기를 유발시켜 줄만한 삶의 본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날 교회의 축복사는 물론 대관장단이나 십이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예언자는 실제로 몇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도들은 성임이 될 때에는 요셉 스미스가 죽기 전에 사도들에게 준 모든 열쇠와 권능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들은 그가 대관장단에 속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권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때까지 모든 권능은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의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로 지지되나 한 시대에 한 사람의 계시자만이 교회의 대관장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권의 열쇠는 그에게 속해 있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위임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람은 특별한 자질을 갖추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름이란 주님과 그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더욱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생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해 보호되어 그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따라서 교회의 대관장이 됩니다.

교회의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대관장단이 해체되며 십이사도 정원회가 자동적으로 교회를 관장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교회의 대관장이 됩니다. 부리감 영 대관장은 새로운 대관장단이 구성되기 전 삼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교회를 관장하였습니다. 존 테일러 역시 같은 직책으로 삼년간 교회를 관장하였고 윌포드 우드럽은 이년간을

관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책을 갖는 동안은 대관장단으로서 두 보좌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주님의 예언자와 대변자로서 일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교회의 대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드럽 대관장은 히버 제이 그랜트에게 보낸 편지(1887년 3월 28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교회가 조직된 이래 사도들이 따를 길을 떠나도록 찬성을 하거나 영향력을 주기 전에, 교회를 조직하였고 57년간 영감으로 교회를 다스려 오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예언자가 다음 예언자에게 모든 것을 인계하는 것은 “주님의 사업을 하는데 많은 혼란과 좌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이나 혁명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성임된 계획과 독특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는” 질서있는 일이어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교회를 관장한 열 명은 각기 다른 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공적을 남겼으며 보기 드문 인물이었으며 각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어린 시절부터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젊은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모든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말을 할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달의 성도의 벗은 이 경륜 시대의 열 분의 예언자에 관한 기사와 오늘날

젊은이의 생활과 필적할만한 그들의 생활의 면모를 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열성을 다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들의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보다도 훨씬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부리감 영 대관장 때에 태어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처럼 대부분이 어려움이 많았던 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었고 가난과 싸웠고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유혹도 당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특별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소망을 알았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를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생활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희망은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결국 지상에 있는 그의 대변자가 되도록 자질을 갖추어 갔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일어나기 쉽고 성인으로 접어들어는 어려운 때인 14세의 나이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의 책임에 관한 말씀과 항상 성실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지시와 그외에도 많은 지시를 받았으며 “그외에도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여기에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가지 사항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발생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요셉은 가끔 “소년 예언자”라고도 불리우나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러한 명칭이 주어졌다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

해야 합니다. 요셉이 신권을 받은 것은 귀환 선교사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의 나이인 24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어린 시절에 준비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 교회의 평의회를 관장하기에 필요한 자질을 쌓아 갔던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요셉은 그러한 부름을 받기에 너무나 어렸었습니다. 그가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된 것은 25세 때의 일이며 그의 28회 생일을 맞은 후 3개월만에 최초의 대관장단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부리감 영은 43세에 주님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에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 때까지 역대 대관장은 62세부터 84세 사이에 대관장이 되었고 79세부터 96세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언자들의 평균 연령은 79세이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대관장이 항상 연세가 드신 분이 되시리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는 행동, 활력, 창의력이 있고 연세가 드신 분은 하나님과의 오랜 대화를 통한 경험으로 안정감, 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 선택된 특별한 원칙에서 예외가 된 것입니다.

부리감 영 역시 일찌기 지도력을 쌓았습니다. 31세의 나이에 교회로 개종한 그는 오하이오 주의 커트랜드에 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찾아 갔습니다. 부리감은 요셉이 숲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특별한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부리감 영은 후일에 이 모임을 다 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저녁에 몇명의 형제들이 모였고 우리는 왕국에 관한 일들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는(예언자)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자 형제들이 그의 옆에 둘러 앉아 나에게 부여된 방언의 은사에 관한 예언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순수한 아담의 언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리감 형제가 받은 은사를 그가 저주할 것을 바란다고 하자 그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리감 영 형제가 교회를 관장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뒷

아부라함/램브란트작



부분의 말씀은 내가 없을 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가 대관장이 되기 12년 전부터 그의 손길을 뻗치셨으며; 그의 눈길은 벌써 부리감을 향했고 그를 지켜보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리감 영은 많은 교훈을 배워야 했으며 그후 12년 간은 고난과 시련이 뒤따랐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그를 주님이 뜻하신 바의 목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존 테일러 역시 일찌기 선택을 받았는데 비록 그는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다른 교회의 지도자였으나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에게 역사하시어 결국 그는 교회의 다른 사도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6세에 그는 몇시간씩 주님께 간구하였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나 혹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는 달콤하고 보드랍고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천사나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 연주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팔을 들고 만방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늘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현의 의미를 모든 교회의 회원은 알아야 합니다.) 17세의 나이에 그는 감리교의 지방목사가 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감리교 모임에 참석을 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해야 하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곧 7년 후인 24세에 존 테일러 대관장은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필리피 프랏트에 의해 그곳에서 교회에 개종했던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교회의 회원도 아닌 로버트 메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로부터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

다.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 몇몇 사람이 복음의 회복을 알리는 시현을 받았습니다. 로버트 메이슨 역시 그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윌포드 우드럽에게 “그는 새로운 왕국에서 큰 일을 하게 될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슨 자신은 신권을 소유하고 그의 의식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윌포드 우드럽의 나이 23세 때 일입니다. 그 후 4년만에 윌포드 우드럽은 침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그의 장래를 준비시켜 주는 무수한 다른 영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경우에도 주님께서 교회의 축복사인 요셉 스미스 일세의 축복을 통해 그의 나이 22세에 의미 심장하나 간단 명료한 말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이 사업을 위해 부르셨도다. 그대는 지상의 모든 주민에게 구세주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노라. 그대는 야벳 형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대처럼 강한 사람이 지상에는 없을 것이며... 죽은 자들은 그대에게 그들의 앞 치마와 손수건을 보낼 것이며 그대가 그것을 만짐으로써 그 소유자들이 온전케 될 것이로다. 그대는 부정한 영을 지배할 권능을 갖게 될 것이며 그대의 명에 따라 암흑의 권세가 물러 가고 악마가 도망을 하게 되리라. 필요하다면 그대의 기도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대는 장수하게 되리로다. 그대 마음에 있는 활력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며 그대의 육신에 있는 활력은 보존될 것이로다.”

스노우 대관장의 생명은 수 차에 걸쳐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84

세에 대관장이 되었고 장수하였으나 주님께서는 일찌기 축복사의 축복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며, 그의 이와 같은 오랜 준비는 그의 만년의 사업을 훌륭히 이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스노우 대관장은 미래의 대관장에 조셉 에프 스미스가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분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생애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 것은 스노우 대관장의 예언이 있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젊은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의 삼촌인 요셉 스미스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도 여러 가지의 훈련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세의 나이에 그는 하와이 군도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지 9년만에 그는 다시 로렌조 스노우와 몇명의 선교사와 함께 중요한 선교지인 그곳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이 타고 있던 배가 전복했으며 그가 익사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권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으며 그후 그는 주님께서 조셉 에프 스미스가 언젠가는 주님의 예언자가 되리라는 것을 자기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가 대관장이 되기 3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나이는 24세였으며 주님께서는 그의 장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장래처럼 분명히 장래가 알려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어머니와 함께 자주 상호 부조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정규 집회가 끝났을 때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동생인 에리자 알 스노우는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 축복을 하였는데 지나 더 영이 통변의 은사로 이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스노우 자매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 히버 제이 그랜트가 언젠가는 주님의 사도가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그랜트 대관장의 부친과 절친한 친구였던 히버 씨 킴볼이 이 어린 소년을 의자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후일에 어머니가 그랜트 대관장에게 들려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그랜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며 부친보다도 교회에서 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했다. 네가 아다시피 너의 부친은 부리감 영대관장의 보좌를 지내지지 않았니.”



그렇지만 이러한 예언은 그가 1883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직후 받은 시현만큼 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현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인 제메디아 그랜트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구세주를 보았으며 십이사도의 부름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조지 알버트 스미스에게도 역시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주님의 뜻이 전해 졌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이 축복을 받은 것은 16세의 일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시온의 아들 가운데 강한 예언자가 될지어다. 주님의 천사가 항상 그대를 인도하고 하늘에서의 선택된 축복이 그대에게 머물게 되리라…”

“그대는 하늘의 시현에 싸이게 될 것이며 옷을 입을 것 같이 구원을 입을 것인데 이는 그대가 주님 앞에 강한 사람이 되겠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에서 강인한 사도가 되며, 그대의 부친 가족 중 그대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자가 없고, 아무도 그대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야벳 형제와 같은 강한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되며,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이 받은 축복의 약속과 비슷함에 유의하라) 만족한 마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며, 주님의 성별된 자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이의 왕과 제사가 될 것이로다…”

이 축복은 스미스 대관장의 선조들에 관해 아는 사람들에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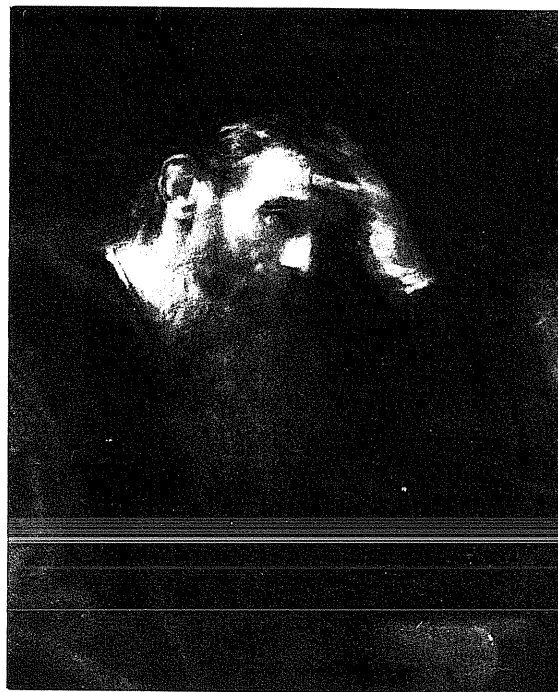
새로운 면을 더해 줍니다. 그의 부친 존 헨리 스미스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때에 사도와 대관장단의 보좌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조부인 조지 에이 스미스 역시 사도였으며 부리감 영 대관장 때 대관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그의 증조부인 존 스미스는 요셉 스미스 일세의 형제로 하이람 스미스가 성인이 되기 전 몇해 동안 교회의 축복사로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의 내용은 특별히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의 부친 가족 중 그대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자가 없고, 아무도 그대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러한 것은 요셉 스미스가 첫 번째 시현을 받았을 때와 같은 나이인 14세의 나이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대관장 역시 젊은 시절에 그의 장래의 책임에 관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젊은 선교사로서 그는 망향병에 걸렸고 실의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선교사 모임을 갖고 있을때 주님의 충만하신 영이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선교부장은 방안에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그는 예언의 영으로 젊은 맥케이 장로에게 “데이비드 형제여 사탄이 그대를 사로 잡으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보살피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만일 형제가 계속 신앙을 굳게 지킨다면 형제는 교회의 지도적인 정원회에 오를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그에 관한 예언의 모두가었으나 젊은 데이비드에게는 오랜 동안에 끊임없이 추구해온 노력의 결과이었으며 그의 생애에



부리감 영/마흔리 영 작



바울/램브란트작

있어서 낙망하고 있었던 때에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었던 충분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사람처럼 주님의 대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조부인 하이람 스미스의 아들인 교회의 축복사 존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충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기대되는 시온의 아들로 헤아림을 받게 되리라. 그대의 이름은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며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그대의 선조의 연대기에 등록이 되리라. 장수하는 특권을 그대에게 부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바라노라. ... 과거의 경험으로 지혜를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의 손질이 영구히 그

대와 함께 함을 알게 될 것이며 그대의 생명은 현명한 목적으로 보존되리라라는 것을 알게 되리다. 그대는 또한 지상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대의 형제들에게 권고하고 백성들을 관장하는 것이 그대의 임무가 되리라. 국내나 해외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대의 의무가 되리다.”

근 60년간 우리의 대관장은 그의 차례가 올 때까지 교회의 예언자들을 지지하며 12사도의 일원으로서 성실히 봉사해 왔으며, 그런 다음에 대신권의 장으로서 주님의 예언자로서 그의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기 다른 개성을 지녔는데 올손 휘트니 장로는 그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

이 있습니다.

“.....교회의 각 대관장은 거룩하고 높은 책임을 받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항상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원칙과 목적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나 계획과 지시와 절차, 방법이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아니고 내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의 현명하고 고상한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가장 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과 방법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필요한 시간이 닥칠 때에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 예언자는 교회의 발전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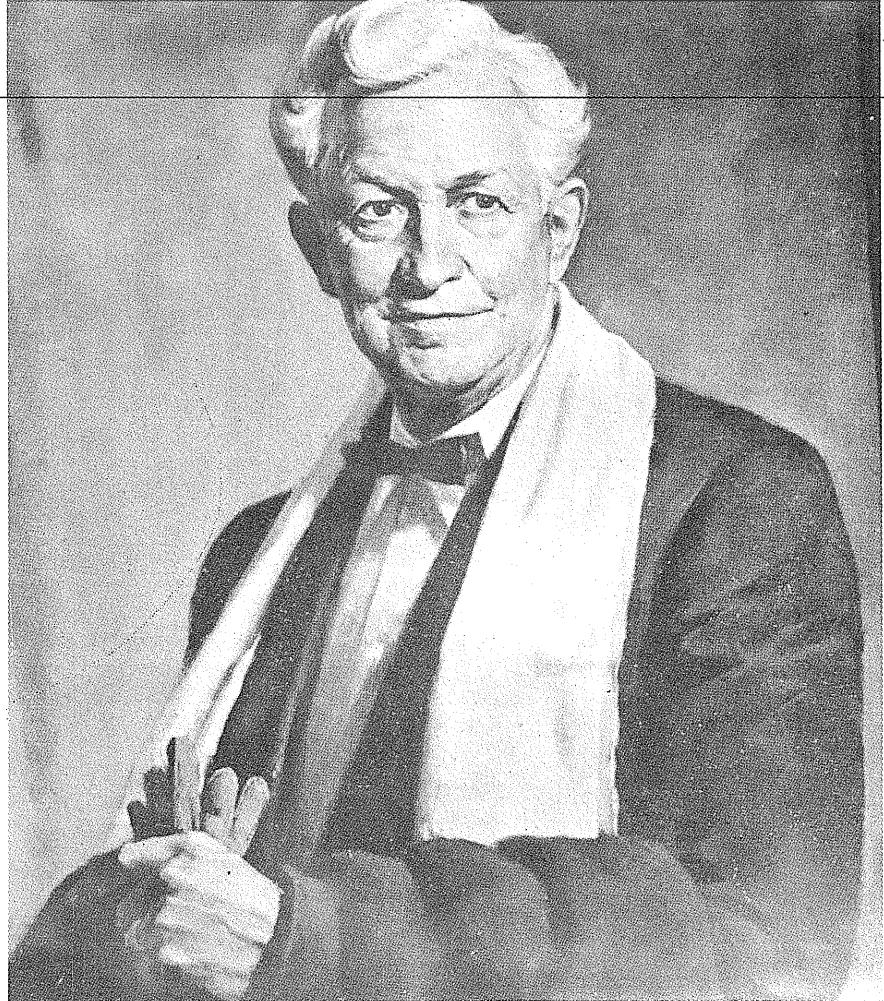
장에 자기의 독특한 힘을 더 했습니다. 각 예언자가 재직하는 동안 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모든 변화가 예언자의 손에 의해서 이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 기타의 인물들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생각되나 사실상 모든 예언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님이 선택한 이래 그들이 재직하는 동안 교회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대관장으로 있는 동안 지상에 하나님 왕국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요셉은 구세주에 대한 교회 회원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써 그의 재림을 고취시켰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을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대관장이 된지 14년만에 요셉은 일리노이 주의 나부 시에 하나님 왕국의 기초를 완성했는데 이것은 해의 왕국의 원리에 따른 도시 국가였습니다.

부리감 영은 교회를 서부로 이동시킨 큰 공적을 남겼고 시온의 경계를 확장했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의 재직 시에 신권회 조직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각 스테이크 부장에게는 보다 많은 책임이 부여된 강화된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테일러 대관장은 교회사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맡은 분으로, 이 때에 미국 정부는 유타주와 복수 결혼의 관습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복수 결혼 폐지의 선언으로 다시 평화가 이곳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착공한지 40년만에 솔트레이크 신전이 완성되었으며 영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 앨빈 기팅스 작

적인 재헌납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신전 사업과 계보 사업에 많은 시간을 보낸 윌포드 우드럽이 이 기간을 다스리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는 3년간 재직했으나 이 때는 시기적으로 세기가 바뀌는 중요한 때였습니다. 소송 문제와 전국적인 불황으로 교회는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로렌조 스노우는 평생 동안 교회의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피스가산¹⁾에서 소규모의 지역 사회를 독립시킴으로써 부리감 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부리감 시에서 탁월한 지역 사회 건설자로서 부리감 영 대관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천국의 문”이라는 교회의 영화에서

1. 피스가산 : 아이오아주 그랜드강 근처에 있음.

도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11조를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노우 대관장은 탁월한 지역 사회 건설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개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통찰력을 지닌 분이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시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 확립된 생의 표준에 따라 20세기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교회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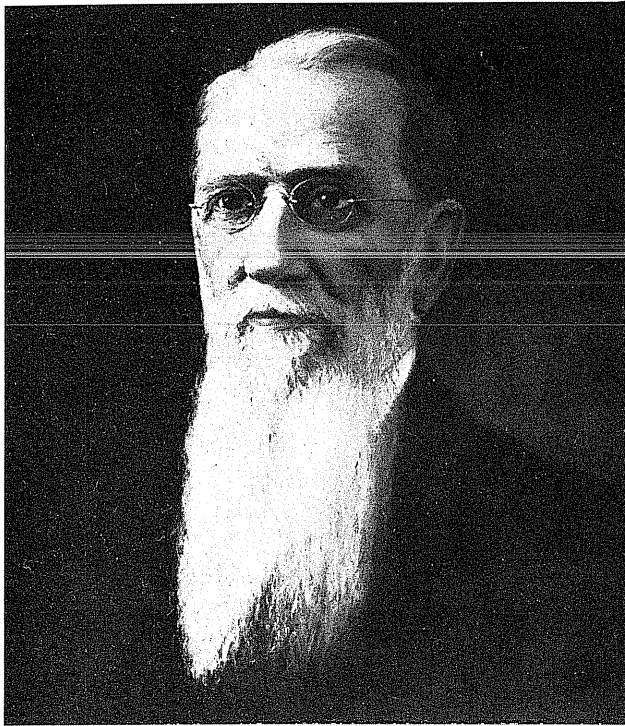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재직 시절은 모험과 실험의 시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시절은 오늘날 교회의 상호 프로그램의 시효가 된 때입니다. 가정의 밤, 교회의 보조 조직의 정비와 신권의 책임이 1910년부터 1918년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대체로 정리되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금주법과 그에 따른 반작용, 경제 공황, 2차 대전 등이 대부분의 성도가 사는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력을 지닌 허버 제이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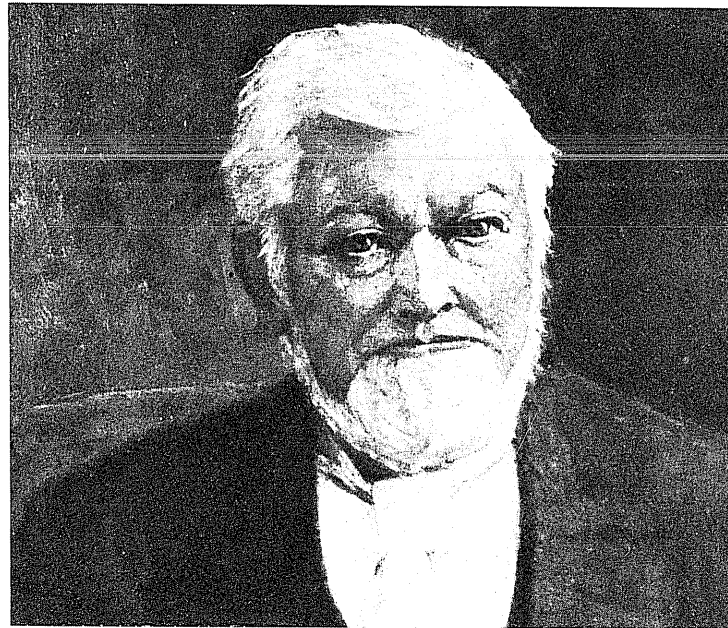
랜트 대관장이 이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복지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프로그램은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에 끝나자 교회는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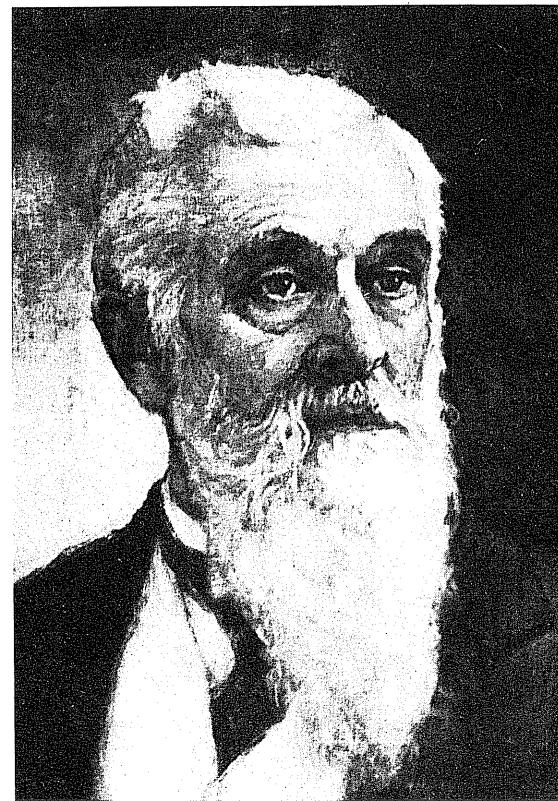
계 속으로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또 다시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였으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 분으로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과거의 유산과 교회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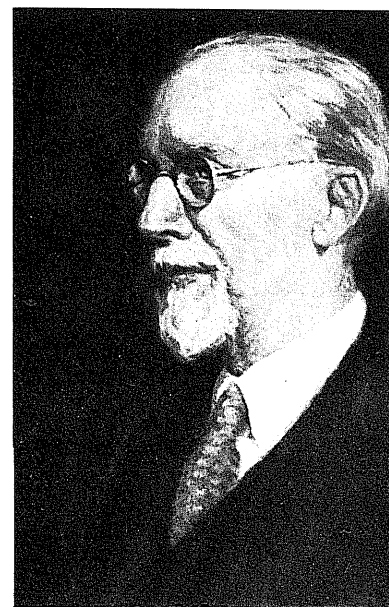
요셉 에프 스미스/레위스 에이 램세이 작



윌포드 우드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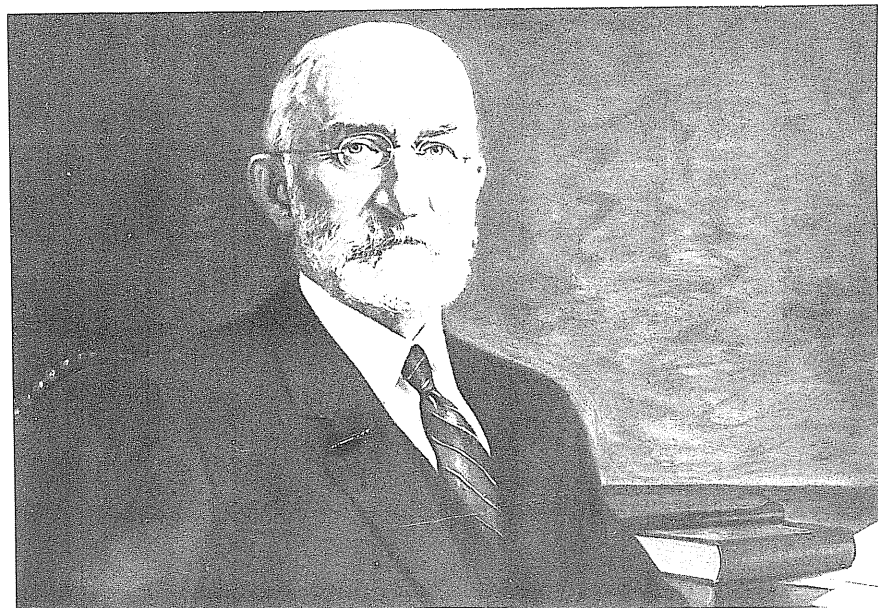
존 테일러/존 크로스 작



조지 알버트 스미스/리 그린 리차즈 작

세상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지적하여 주심으로써 미래를 향해 굳건히 발돋음을 하셨습니다.

세계를 순방하도록 최초로 부름을 받은 사도였던 맥케이 대관장은 교회가 세계 속으로 뻗어 가는 시기에 교회를 관장한 이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이 분은 행정부의 관리들과도 쉽게 어울렸으며 세계 각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안정감과 위엄을 더해 주었습니다.



히비 제이 그랜트/씨이 제이 획스 작

다. 교회의 협의회와 신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대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맥케이 대관장을 도울 수 있는 학사이자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이 세계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에 교회를 관장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스테이크가 각처에서 조직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매주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 오는 모습을 직접 보며 복음의 축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항상 갖는 우리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세주와 관계를 맺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

한 일은 다만 많은 기도와 금식과 연구를 통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구세주의 학생으로서 우리의 맨 앞장을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우리가 항상 노력할 것을 일깨워 주는 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각 대관장은 자기의 부름에 적합한 특별한 훈련을 쌓은 사람입니다. 제이 루이 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은 다음



조셉 필딩 스미스/리 그린 리차즈 작

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의 모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지 않은 사람을 그의 백성들을 이끌도록 부르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그들의 젊은 시절과 준비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점들을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회고하면서 드립니다. 준비 기간을 거친 이들처럼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지상에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될 것이며 주일

학교 교사나 상향회 역원이 될 것이며 상호 부조회 회장이나 초등학교 교사나 학자나 사업계의 지도자나 과학자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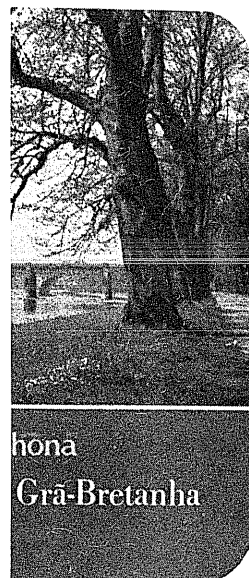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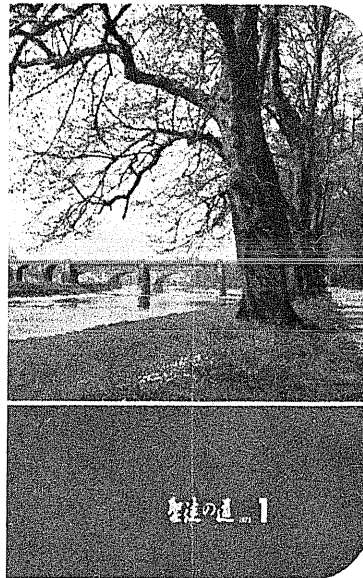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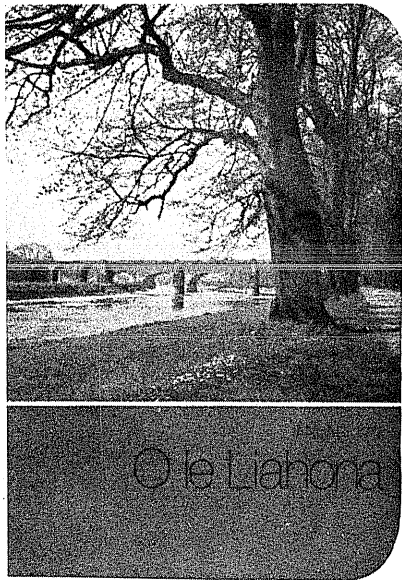
축복사의 축복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상의 예언자가 그들의 말은 사명을 수행하도록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말은 바를 다하도록 준비할 수 있게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972년 7월호

성도의 빛의 목적



이란과 소란과 동요로 가득차 있는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개인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나사렛의 예수가 가르친 원리를 그대로 다 따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랑보다 탐욕, 이기심, 법범, 잔인, 질투, 시기 등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팽배해 있는 이러한 악에 대해 정부나 공공 단체나 국가 기관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야말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악을 행하며 수 많은 이웃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악의 힘을 묶는 열쇠는 인간의 마음을 변

화시키는데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조직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조직체가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 것입니다.

의로움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만이 단독적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대표자로서 유일하게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교회가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교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이름만이 회원이고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이 귀에 거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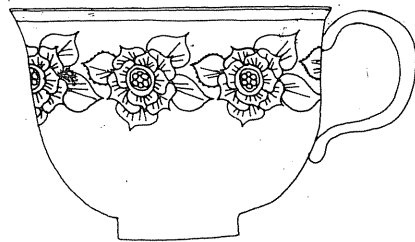
지도 모릅니다. 배타적이고 타인을 무시하며 심지어 광신적으로 들릴지도 모르나 사실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삼 백만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해 준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상의 사실 그 자체만이 교회가 진실되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은 1820년에 하나님께서 소년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부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행하도록 부르신 예언자나 사도들에게 그의 마음과 뜻을 계속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로 더욱 참된 교회라는 사실이 증거

하면...하나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 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도 배우게 되리니,”(교리와 성약 88: 77~79).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성도의 빛이 왜 여러분의 전 인생의 경험에 진리와 빛을 가져다 주려고 시도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아 시도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보다 큰 지식과 지혜와 구세주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빛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 내에서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성도의 빛은 현재의 상태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기사가 첨가되고 변화가 뒤따르며, 또 다른 방법의 시도가 과거에서처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라에서 발간된 교회 책자들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건설적인 의견을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러분이 지식을 얻는데 이 책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근면하고 순종심이 강하여 다른 사람보다 한층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었으면 장차 오는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성 130: 19) ㉮



사랑하는 조안에게

오늘 밤 나는 너에게 이 조그만 찻잔을 가져다 주었지. 나는 그것이 너에게 힘의 상징이 되었으면 한단다. 이 잔은 언제나 지금처럼 아름답고 빛나지는 않았단다.

처음에는 진흙으로 잘 다듬어서 만들고 도공은 그의 이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입혔단다. 이 컵은 그가 마음 속에서 느꼈던 아름다움의 표현이었단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이 일을 했고 다 완성했을 때는 그의 일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되었단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리 자기가 주의깊게 일을 하더라도 이 컵이 구워진 후에도 진흙에 티가 있다면 참된 아름다움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단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이 잔을 가마솥에 넣었는데 그는 이미 다른 많은 컵이 그와 같은 온도에서는 모두 깨어졌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었단다. 그는 초조한 마음을 굽하지 못하며 기다렸단다. 시간이 다 되어 솥 속을 보았을 때 그는 기쁨에 넘쳐 어쩔 줄을 몰랐단다. 이 컵이 아름다움을 지닌 채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란단다.

그렇지만 그의 익숙한 눈에는 티가 보였고 만족할 수가 없었단다. 그는 다시 컵을 솥에 넣고 더욱 강한 열을 가했단다. 그는 이 찻잔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단다. 두 번째에도 이 컵이 고스란히 있고 더욱이 진흙의 티가 모두 깨끗이 없어진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다.

그렇지만 그는 또 다시 불에 구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단다. 떨리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열을 가했단다. 마침내 그는 손에 컵을 꺼내 들었단다. 그는 만족했단다. 모든 티와 결점은 사라져 버렸고 그가 상상해 왔던 아름다움만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단다.

사랑하는 조안아, 네가 인생이라는 도가니 속에 있을 때 이 작은 컵을 생각해 보아라. 도공은 네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에 빛을 비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기억하여라.

사랑하는 엄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하고 그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교회나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빛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이 책은 교회 회원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무엇이든 약속을 해 줍니까?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1832년 그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너희가 이해

십계명

버나드 피 브룩뱅크 장로
십이사도 보조

114차 반 연차 대회에서 행한 연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일 성도가 되는데 커다란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어 주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6~27)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땅의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창조나 출생은 거룩한 권능의 산 증거이며, 인간은 누구나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니도록 발전하고 성장하게 돕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읽고 간단히 이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동물들은 십계명을 알거나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서 몇 종류의 짐승을 기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동물에게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색을 지닌 공작을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게는 십계명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등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이러한 하등 동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어떤 사람은 십계명보다도 이러한 동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인간의 손과 마음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나 거짓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애굽기 20 : 2~6)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일과 쾌락만을 사랑하고 관심을 쏟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창조주에 대한 아버지의 불경한 태도는 그의 자손들에게도 전승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과 존경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보다 거짓 신과 세상적인 창조물을 사랑하고 숭배하게 될 때 경계 될 위험이나 악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

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로마서 1 : 21~22, 24~25)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이 만든 거짓된 교리를 경배하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로마서 1 : 28~30)

바울의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었던 악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으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그 결과 죄와 악행을 범하는 일을 꺼리낌 없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 신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힘과 영향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가 사탄이 되었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인간을 미혹케 하며,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많은 자를 자기의 뜻대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 4 : 4)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따르면 영적인 발전과 안전이 찾아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 20 : 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즉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 6 : 9)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우 맥케이 대판장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속해있는 가정에서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인간의 마음 속에 존경심이 크게 작용한다면 죄악이나 슬픔이 싹틀 여유가 없을 것이며 기쁨과 행복이 증가될 것입니다.……”(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알게 된다. [테저렛 출판사, 1967], 29페이지)

러스킨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경심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갖는 가장 고상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존경심은 힘의 표시입니다. 불경함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성스러운 것을 비웃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상함이나 위엄은 존경심의 결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거룩함에 관하여 그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1. 러스킨, 존(1819~1900) 영국의 작가 및 문학 평론가.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애굽기 20 : 8~11)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스럽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색하는 날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성찬을 드는 날입니다. 거룩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들은 이러한 죄를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모독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며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대한 사랑을 증대시켜 줍니다.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 : 12) 주님께서는 예외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여러분 자신의 출생과 생명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계명에의 순종은 개인적인 발전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찌니라”(출 20 : 13)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성스러운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죽이는 재미로 살인행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 : 14)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율법을 근거로하여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간음이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고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어 쫓기리라. “간음하였으나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완전히 손을 떼어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시 범하면 용서받지 못하고 내어 쫓기리라”(교성 42 : 24~26) 여기서 내어 쫓긴다는 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파문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 : 9~10)

간음이나 남색은 악마가 교사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보시기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간음이나 사통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힘을 소멸시키고 인간을 저급한 동물과 같게 해 줍니다.

“도적질하지 말찌니라”(출 20 : 15)라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십일조나 기타 헌금을 성실히 바치는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도 정직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말 3 : 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정직한 마음과 외모의 징후는 점점 타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정직함이란 그의 외

모에서 평안과 행복을 반영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출 20 : 16)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19 : 19)고 하였습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인간을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지는 않았읍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행위는 사탄에 의해 교사된 행위이며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질투나 신성모독의 마음을 싹트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출 20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 탐욕을 금하라.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주기를 배우라”(교성 88 : 12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아직도 하나님의 생활 방식의 기초를 이루며 하나님 왕국의 복음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과 그의 계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가 지상을 떠나 얻게 되는 영광에도 그 정도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만일 모든 인류가 다 십계명을 준수한다면 우리는 자존심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이 지상에서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말일성도는 오늘날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여러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爾

내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점은 호텔에 머무는 동안 매일 같이 이행하는 아침 구보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 팔백만인 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에서만은 그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미국의 파리'라고도 부르는 이 도시의 심장부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우리 호텔에서 나와 길을 건너서면 아름다운 원형으로된 공원

은 가로수를 달리기 시작한다. 알젠틴의 다른 길과 마찬가지로 보도는 사방 2인치짜리의 부록크가 깔려 있다. 길 양편에는 마치 우산처럼 길을 덮어 주는 큰 나무가 서 있다. 공원 내에는 여기 저기 동상이 서 있고 잔디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나는 뛰면서 큰 나무의 그늘 아래 키가 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꾸겨진 갈색 오바에 커서 잘맞지 않는 바지를 입

자를 찢아서는 주위에 물려든 비둘기에게 던져 주는 것이었다.

날씨가 추웠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겨울이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용히 서서 그 사람은 자기의 식사를 비둘기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그를 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남의 눈에 띄진 안띄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얼마나 하루를 시작하는 훌륭한 방법인가?

그 꾸겨진 옷을 입은 노인은 하루를 이처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에게 조용히 알려 주었다.

우리가 누구에 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에게 이 소식을 전화를 통해서라도 알리고, 그의 아들이나 딸들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 소식은 알립시다. 우리들로부터 소식을 기대하지 않는 선교사나 군인들에게 편지를 씁시다.

정원에서 꽃을 꺾어 식탁 위에 꽂아 놓아 아침 식사 시간의 분위기를 더욱 명랑하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기쁨과 관심을 보이고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이 매일 아침의 일과가 되게 합시다.

훌륭한 경험담이나 성구를 아침 식사 시간에 가족과 함께 나누시다.

다른 식구나 이웃을 위해 구두를 닦아 준다든지 싱싱한 딸기를 따서 준다든지 하는 의외의 일들을 행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안부의 소식을 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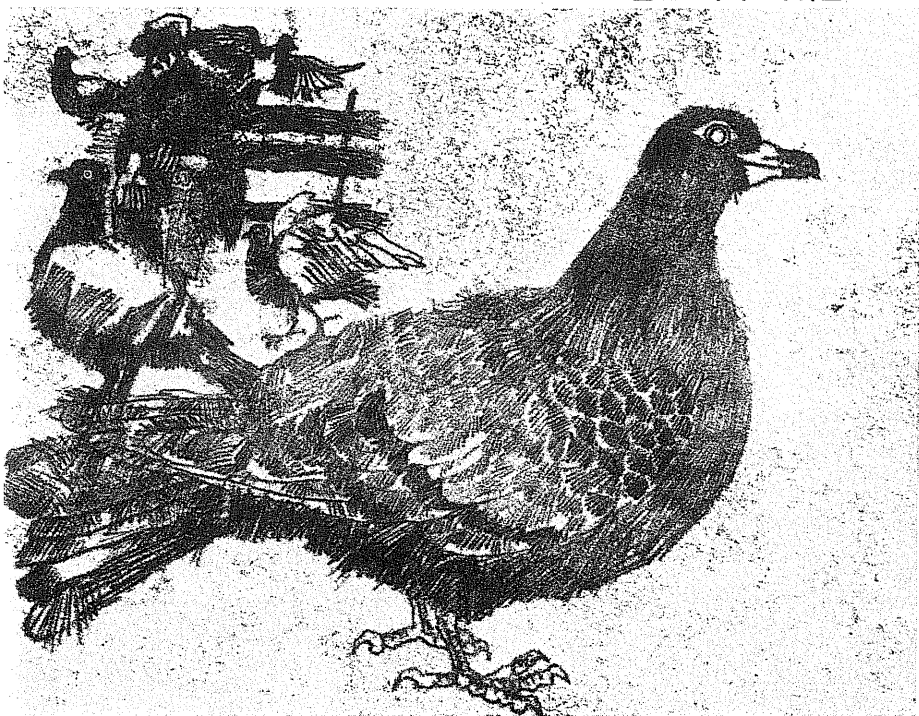
아침 이슬이나 서리가 다 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산보를 합시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원의 나무 밑에서 꾸겨진 옷을 입고 비둘기와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처럼 우리도 공원에 나가서 비둘기와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시다.



여행 공원에서의 아침식사

웬델 제이 애쉬튼



이 있는데 이 공원의 넓이는 무려 5 에이커나 되었다. 기와 지붕과 흰벽으로 담을 쌓아 아름다운 저택, 폭 넓은 가로수 길, 큰 분수, 많은 동상 등이 규모있게 들어 차있는 이 자랑스러운 도시에 있는 150여개의 공원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원이다.

날이 밝자 나는 초록색의 정구화에도 갈색의 바지와 노란 상의를 입고 공원 주위에 있는 폭 넓

고 있었다. 목에는 색이 바랜 초록색 스카아프를 둘렀고 크고 넓은 가죽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옆에는 큰 플라스틱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는 노란색의 빵과 과자를 찢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는 벌써 공원을 네 바퀴나 돌았는데 돌 때마다 큰 나무 그늘에 있는 그 사람이 종이에 찢빵을 떼어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파

